



[금융] 증시·암호화폐 부진 갈 곳 잃은 투자금 은행에 몰린다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596.58 (-7.66)	코스닥 856.25 (+3.17)
금리 (미국 3년) 3.046 (+0.135)	환율 (원/달러) 1284.10 (-0.10) (16일)

중소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주조, 용접,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제조업이 대표적이다. “3D” 업종은 말할 것도 없다. 내국인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외국인 인력마저 기근이다. 산업 현장의 고령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농촌, 어촌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는 인력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외국인 인력 정책 대전환이 절실하다. 대표적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돌아봐야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을 떠받치는 “역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모색해야한다. 그래야 산업이 유지되고, 생기가 돈다. 미래도 준비할 수 있다. 메트로신문이 [외국인 인력 대전환 시급] 시리즈를 통해 외국인 인력, 그리고 관련 정책을 돌아보고 해법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 내국인 취업기피→외국인력 의존도 심화

# 甲이 된 외국인 근로자 中企, 인력난에 큰 시름

## 외국인 인력 대전환 시급

❶ 중기, 일손 부족 아우성

내국인들 ‘3D업종’ 기피 현상에 제조업 등 中企, 외국인근로자 의존 태업 등 ‘역갑질’에도 속수무책

코로나19 여파 비전문인력 급감 ‘외국인 쿼터제’ 인력난 부채질

광주광역시에 제1공장을 두고 있는 건자재 회사 거광기업.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24일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4명을 어렵게 구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찾다 찾다 얻은 인원이 다. 공장 일은 크리스마스가 끝난 26일부터 바로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이 일하고 보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1월 중순부터 사달이 났다.

“갑자기 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보내달라고 하더라. 한국에 누나가 있는데 (옮겨서)같이 일하고 싶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안된다고 했다. 얼마나 (사람을) 기다렸는데 오자마자 옮겨달라는 것은 도저히 못들어주겠다고 했다. 게다가 같이 온 또다른 근로자는 한국에 와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매달 300만~320만원을 받고 있다며 그쪽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월급을 300만원 이상 달라고 요구했다. 지금은 너무 이르니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고 했다. 며칠후 이들을 포함해 4명이 아예 사발까지 하고 출근하더라. 그러면서 다른 회사로 가겠다고 지금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천불이 난다.” 거광기업 문수용 회장의 말이다.

경기 여주에 있는 플라스틱·파지 등 재활용업체 구로종합무역. 이 회사는

한국인 직원 5명,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 5명, 그리고 한때 ‘조선족’이라고 불렸던 재중 교포가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늘어나는 일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제한된 쿼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구로종합무역 이규영 대표는 “한국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교차로에 구인광고도 내도 오질 않는다. 일하는 재중 교포들은 60~70대가 됐다. 나이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려도 그냥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도 외국인 직원이 애를 먹인 경험이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며 그 직원이 태업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태업하는 그의 사업장 이동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고용한지 6개월만의 일이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첫 3년간 총 3회의 사업장 이동을 허락하고 있다. 며칠을 일하다 옮겨도 ‘3년·3회’만 지키면 된다. 숙련 일꾼이 절실한 기업 현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옮겨달라고 생떼 쓰며 태업을 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는 안쓰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떠난 외국인 자리를 내국인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냥 비워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인지도 모를 외국인을 배정해줄 때까지 정처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중소기업 현실이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법무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 인원 가운데 중소기업, 소기업에서 주로 일하는 비전문인력은 3월 말 현재 33만 7994명이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 경제·위기·개혁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 당부

### 尹 대통령, 첫 시정연설 인생안정 위해 추경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취임 후 열세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을 요청했다.

15분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 키워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를 비롯해 ‘위기’, ‘국민·개혁’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경제

와 위기는 향후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천명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연설 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10시 23분까지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10번, ‘위기’를 9번 언급했다. ‘국민’과 ‘개혁’은 각 7번, ‘민생’과 ‘협력’은 각 5번, ‘도전’과 ‘의회주의’는 각 4번, ‘초당적 협력’과 ‘안보’는 각 3번 순이었다.

추경안에 방점을 찍은 시정연설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시급

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의식한 듯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추경안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에 산적한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당과의 협력과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함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 입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본회의장으로 걸어갔고, 연단에 올라서도 본회의장 중앙과 민주당·정의당을 향해 인사를 보내는 등 협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추경-금리 긴밀 공조… 최적 정책조합 찾을 것”

추경호 부총리-이창용 총재 첫 회동 고물가 대응, 정책공조 강화하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만나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의 59조원 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 정책의 엇박자 조짐마저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한은 총재와 조찬 회동 후 “추경 편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자극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다양한 물가안정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다만, 국민의 실질 소득을 받쳐주는 것도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반적 물가나 거시경제 안정과 관련 한은과 적절한 정책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재정 담당 추 부총리와 통화 담당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지만 정책 수단은 상당히 제약돼 있는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5%에 육박하며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저금리 기조가 인상 움직임으로 바뀌면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기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대출도 어려워져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3면에 계속)

/원승일 기자 won@

격변의 20년,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NH농협은행 (4면)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회의원 선거, 김진표·이상민·조정식·우상호 4파전  
▲ 윤호중, 김건희에 ‘함박미소’ 이유… ‘파평윤씨니 도와달라 해’ /사진 뉴스스

▲ ‘처럼회’ 김용민 “새 국회의장은 ‘입법권’ 침해 말길”  
▲ 민주, 송영길 제안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 조기 입법



▲ 이인영 “尹정부, 북한에 코로나 협력 공식 제안하길”  
▲ 김은혜, ‘강용석 단일화’에 신중론… “도민·당원 의견 경청중” /사진 뉴스스

# “59조 추경, 野 협조 시급… 北 호응하면 코로나 방역 지원”

**尹 대통령, 첫 시정연설**  
“새 정부 5년 미래결정 중요한 시간  
주요 국정사안 긴밀히 논의할 것  
국민 희생, 자긍심 되도록 보상”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간에 이뤄졌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시 연합내각 구성을 예를 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

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까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역설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연금 개혁과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들어 16번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코로나19가 대유행 중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

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이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오늘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공급망·가계대출·중경제… 올 韓경제 리스크

**전경련, 상경계열 교수 150명 설문**  
47% “공급교란 심화 가능성 높아”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대응책 꼽아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3대 위험 요인으로 공급망, 가계대출, 중국경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6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신정부 유념해야 할 경제리스크를 설문 조사한 결과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경제 경착륙이 3대 위험으로 집계됐다.

또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고물가)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리스크도 큰 우려는 아니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응답한 교수들의 47.3%는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공급망 교란 심화 가능성이 높고, 53.3%

는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42.2%)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16.5%)과 해외자원개발 확대(15.3%)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41.3%가 발생확률이 높고, 42.0%는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수들이 제안한 가계부채의 효과적 해결방안으로는 기준금리 인상(28.5%), 고용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강화(17.1%) 등이 주를 이뤘다.

중국 부동산 버블과 과도한 기업부채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해서 39.3%가 발생 가능성이 높고, 42.7%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이를 대비해 우리 정부는 수출 다변화 지원정책(47.0%),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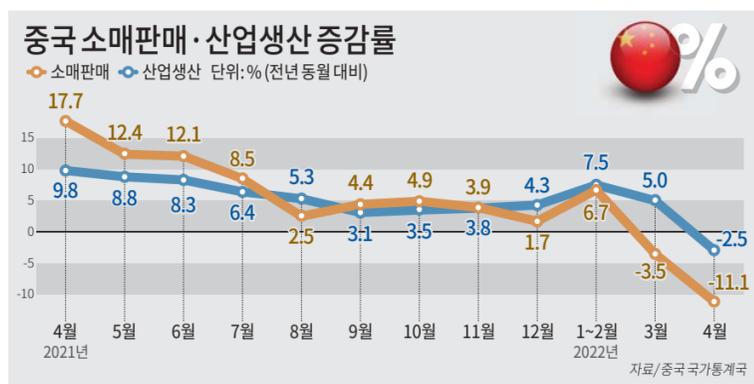
정적 금융시스템 방어력 구축(29.5%), 대중 의존도 높은 산업 내수지원책 강화(18.6%) 등의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40% 이상은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으며 금리인상 유지, 경기침체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위축과 관련해서 41.3%가 발생확률이 높다고 보고, 탄소감축 기술 지원 확대(33.8%)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복합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했다”며 “정책적 역량이 제한돼 있으므로 공급망 교란 심화 등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리스크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中, 소비·생산 2년만에 최악 ‘봉쇄령 쇼크’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상하이 봉쇄에 베이징도 봉쇄 수준 4월 소매판매 전년 대비 11.1% 감소 41개 산업 중 플러스 기록 18개 불과

중국 경제가 봉쇄령의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의 봉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베이징도 사실상 봉쇄 수준으로 방역 조치를 집행하면서 소비와 생산 부문 모두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내었다.

16일 중국 국통계국은 4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했다고 밝혔다. 3월 소매판매 증가율 -3.5%를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 -6.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증감률로 보면 4월 소매판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15.8% 이후 25개월 만에 최저치다. 3월 하순부터 시작된 상하이 봉쇄에 따른 영향이 4월에 본격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생산 부문 역시 충격이 컸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9%로 집계됐다. 3월 5.0%와 비교하면 7.9%포인트나 낮아졌고, 시장 예상치 0.4%에도 크게 못 미쳤다. 2020년 2월 -13.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41개 주요 산업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18개에 불과했다. 특히 시멘트(-18.9%), 정유(-10.5%) 등 인프라 관련 산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토미 우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중국의 경제 활동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위축됐다”며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고, 각 지역의 통제에 따른 물류 지연이 국내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8% 늘었다. 시장 예상치 6.0%에는 다가갔지만 3월 증가율 9.3%에는 못 미쳤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계획만큼 원활히 되지 않았던 얘기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경제를 책임진 도시들이 봉쇄되면서 고용 상황도 악화됐다. 도시 실업률은 6.1%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16~24세 실업률은 18.2%에 달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5.5% 인략) 달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국통계국 관계자는 “전염병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사실이지만 단기적이고 외부적 요인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로 경제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

## 尹 “연금·노동·교육개혁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

» 1면 ‘경제·위기·개혁 강조’서 계속

이같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행동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힘을 보탤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야당 의원들의 의석마다 걸려있던 피켓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은 구호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한 채 시정연설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 역시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 등의 대목에서 총 18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퇴장하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기립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마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의석을 향해 이동하며 민주당, 정의당 및 국무위원

들과도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첫 시정연설 소감에 대해 “국회에 와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해나가는 데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란다”며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답했다.

아울러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중소기업계 “외국인 쿼터제 폐지하고 노동시장 문호 넓혀야”

» 1면 '미이 된 외국인 근로자'서 계속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등 부담 ↑  
작년 3분기 외국인력 미충원율 24.7%  
“다문화 사회 불가피... 정책 변화야”

비전문인력은 2019년까지 5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2021년엔 34만3222명으로 30만명 초반까지 크게 줄었다.

“비전문인력”은 E-9(비전문취업) 비자 취득 외국인과 중국, 구소련 등 외국국적동포(동포)에게 주는 H-2(방문취업) 비자 취득 동포를 더한 숫자다.

E-9은 일반고용허가제, H-2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E-9 외국인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2만751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까지 27만명 이상을 유지했던 비전문취업 체류 외국인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부터는 20만명 초반까지 줄어든 상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E-9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7284명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인원은 1만4083명이었다. 신청 인원의 절반 밖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쿼터로 제한한 것이다. 1분기엔 중소기업들이 1만816명을 신청했지만 도입쿼터는 2분기와 같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2021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들의 외국인력 미충원율은 2020년 3분기 당시 15.7%에서 2021년 3분기엔 24.7%로 크게 늘었다. 이는 채용을 목표로 한 외국인력 4명 중 1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

미다. 특히 기업 규모별 미충원율은 중소기업인 300인 미만인 26.9%로 300인 이상(3%)보다 9배 가량 높았다.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는 답변도 300인 이상은 4.1%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에 속하는 30~99인(13.3%), 10~29인(11.7%), 100~299인(9.7%), 5~9인(8.1%) 기업들은 외국인 의존도가 중견기업, 대기업보다 월등히 높다.

청년들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한다.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은 소위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

ty), 위험한(Dangerous) ‘3D 업종’을 기피한다. 중소 제조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이유다.

중소기업의 내국인 취업 기피→인력난 심화→외국인력 의존도 증가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이어 지난 7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 시행한 ‘주52시간제’는 가뜰이나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주52시간제 시행은 찬성한다. 하지만 경직된 제도 때문에 추가연장근로도 힘들고, 탄력근로

도 한계가 있어 인력 운용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외국인력도 쿼터로 막고 있어 채용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최저임금 급등도 외국인력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들에겐 큰 부담이다.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영세 소기업일 수록 더욱 그렇다.

채용 초기엔 언어 등 소통에 한계가 있고, 일이 서툴러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불멘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숙련 외국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문호도 과감히 넓혀야 한다”면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등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이창용 “韓-美 인플레이션 상황 달라... 금리 방향제시 시기상조”

〈한국은행 총재〉

이 총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회동  
“금리차뿐만 아니라 성장률 변화 주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월 기준금리 인상 액선과 관련해 시장에 어떤 시그널도 주고 있지 않다는 질의에 대해 “아직 금리 문제는 금통위원과 상의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환율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의에 대해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정도 수준의 서로 인식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평가와 한·미 기준금리 역전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됐다.

이 총재는 “우선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일이고 이미 적어도 두 차례 이상의

50베이스포인트(bp·1bp=0.01%포인트) 인상은 시장에 다 반영돼 있다. 그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8%를 넘는 상황에서는 어느 경제학자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 상황은 미국과 크게 다르다. 아직 인플

레이션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미국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과의 금리차만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종합적인 성장이라든지 우리나라 물가라든지 그런 걸 보고 금리 격차가 생기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할 상황을 맞춰서 적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50bp 이상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4월 상황까지 봤을 때는 고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물가가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변화할지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좀 더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1면 '추경-금리'서 계속

### “거시경제 전반 점검 정책 신뢰성 높일 것”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재정 효과가 상쇄돼 물가 안정도, 경제 회복 효과도 미미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고환율 상황 관련 추 부총리는 “오늘도 외환시장의 안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는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환율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두 경제 수장은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중앙은행 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했다.

부총리와 한은 총재는 앞으로 공식 회의체뿐 아니라 격의 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갖기로 했다.

두 수장은 1960년생으로 동갑으로 2008년 금융위원회에서 이 총재는 부위원장, 추 부총리는 금융정책국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청년주택 50만 가구 공급... 분양가 80% 대출 상품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검토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젊은 경제활동기간으로 인해 자산축적 기회가 부족했던 젊은 세대라고 생각한다”면서 “젊은 세대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하

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우수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 사업모델과 대상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250만호 + 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

했다. 원 장관은 또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도 함께 출시하겠다”며 “또 청년들의 청약 당첨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지원,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청년 임대주택도 점차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취임식에서 원 장관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켜 ‘현대판 주거신분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국토교통부

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다”면서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김대환 수습기자 kdh@

역변의 20년,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10> NH농협은행

# 100% 순수 국내자본 '토종은행' 농업인·나라살림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국내 유일 '농업전문 금융기관'  
2012년 3월 주식회사로 재탄생  
내실경영으로 안정적 성장기반  
소통·상생 통한 시너지 극대화

NH농협은행은 1961년 출범해 100% 국내자본으로 설립된 순수 민자본 은행이다. 전국 최대 점포망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관리하는 나라살림 전문 은행으로 자리매김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금융환경에 대응하고, 고객에게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2일 기존 종합농협 체계에서 분리해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등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임직원이 하나 돼 농협은행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이뤄냈다.

농협은행은 이후 ▲내실경영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신사업 발굴로 지속적인 신(新)성장동력 확보 ▲소통과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관리 강화 ▲수익 극대화를 통한 농협 수익센터 역할 강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일류은행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농협은행은 올 1분기 446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이며 전년 동기 대비 8.9%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중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했음에도 거액 부실채권 정상화로 대손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28.9% (208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5556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뛰었다.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9.2% (4969억원), 수수료이익은 3.9% (272억원) 늘었다. 고정이자여신비율 0.29%, 대손충당금적립률 207.71%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 지표들도 크게 개선됐다.

지속적인 신(新) 성장동력 확보와 수익 극대화를 이뤄내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농협은행은 지난 4월 은행권 최초 PaaS 기반  
뱅킹앱을 구현했



권준학 NH농협은행 은행장이 신입행원 5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본사 전경.

다. 모든 금융니즈를 하나의 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 '올원뱅크 차세대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카드, 보험, 증권 등 계열사 핵심서비스를 올원뱅크에서 윈스톱으로 제공하고, 소액 금 투자 등 생활금융 서비스를 확충해 오는 2023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조상진 농협은행 정보통신(IT) 부문 부행장은 "이번 사업은 뱅킹서비스에 PaaS 클라우드와 MSA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올원뱅크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초혁신 디지털뱅크'로 도약할 수 있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농협은행은 우선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CBDC 도입 시 원활한 유통·결제 기능을 수행

권준학 NH농협은행 은행장(오른쪽)이 '함께하는 우리농가 동행기업' 선정을 축하하는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도록 검증한다. 이후 CBDC의 핵심 인프라 전자지갑 서비스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농협은행은 국내 유일 농업전문 금융기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농협은행은 '농업금융컨설팅' 등 다양한 농업인을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농업금융컨설팅'은 원예특작, 축산 부문 농업경영체의 경영상태를 명확히 진단해 개선책을 제시한다.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최적의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농협만의 특화된 무료 컨설팅서비스다.

농협은행은 지난해부터 우리농가와 농식품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함께하는 우리농가 동행기업'을 선정해 왔다. 올해도 총 10개사를 선정해 여신 우대, 제품 판매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통해 선정기업이 우리농가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해 농협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전략목표를 고객 중심 초혁신 디지털 뱅크 도약으로 선정했다.



조상진 NH농협은행 IT부문 부행장이 '올원뱅크 차세대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올원뱅크' 등 디지털전환 가속화  
농업인 금융 컨설팅 등 서비스  
초혁신 디지털뱅크 도약 청사진  
공공·생활 넘어 미래금융 박차

이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로 범농협 수익센터 역할 강화 ▲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농업금융에 특화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선도 ▲공공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위상 강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은행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강을 건너면 배는 두고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가까워서 갖고 가면, 본래의 장점이 단점이 돼 발목을 잡게 된다"며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정신으로 우리는 과거의 생각하는 방식과 일하는 법을 바꿔 근본적인 디지털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의 디지털금융을 향한 포부는 신입 행원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

권 은행장은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신입행원 5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특강에서 고객중심 초혁신 디지털 뱅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통, 화합, 경쟁, 배려의 새로운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협은행을 이끌어갈 최고의 금융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른 뉴노멀(세계관의 변화, 기업가치의 변화, 실력기준의 변화, 주도세대의 변화)을 언급하며 신입행원들이 변화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농협은행은 향후 공공금융과 생활금융을 넘어 미래금융까지 선점해 나갈 것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농협은행은 미래 금융을 선도할 디지털 뱅킹 서비스 역량 강화와 핀테크 플랫폼 기반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개방형 협업모델 확대를 통한 'NH디지털생태계' 구현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린 스타트업 플랫폼(Lean Startup Platform) 구축 등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호남 민심 행기는 국민의힘... '5·18 기념식' 전원 참석

보수 정당 의원 모두 참석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 제안으로 이뤄져  
이준석 대표 "국민 통합 차원"



5·18민주화운동 42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15일 오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보수 정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광주로 향하는 국민의힘 행보와 관련, 호남 민심 포용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제안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부터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인사까지 참석하는 만큼, 당 지도부도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윤 대통령 요청에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18민주

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18일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기념식이 열릴 광주로 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 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수 정당 내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역사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때마다 논란이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

은 조금씩 달라졌다.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18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당시 당 지도부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2018년에도 한국당은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19년은 다소 상황이 달랐다. 황교안 지도부 당시 5·18만인 사태가 있었고, 솜방망이 징계 논란도 있었다. 이후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5·18만인 사태 및 솜방망이 징계 논란에 사과했고, 당 지도부도 그해 기념식에 참석했다.

같은 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대표 자격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은 과거 논란에 대해 사죄의 뜻으로 추모탑에 헌화한 뒤 15초가량 무릎도 꿇었다. 이후에도 당 지도부나 소속 일부 의원들도 이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거나,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을 대하는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었지만,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준석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 언급을 빠뜨린 데 따른 비판 여론이 있었고,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라는 행동으로 '국민 통합'에 대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할 것이라며 "지역 통합은 연설문에 통합을 몇 번 외쳤는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있는 호남 민심을 행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19일부터 시작하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하는 모습 자체가 그만큼 호남을 행기는 메시지로 읽힐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주요 단체와 당 지도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치 국가 당연한 책무”

尹 대통령, 첫 시정연설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제안 설명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추

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규모는 59조 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 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전년도 세제개혁금 등 가용 재원 8조 1000억원과 금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21조 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53조 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

윤 대통령은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감축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24조 5000억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한다.

또,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위해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 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 5000억원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 2조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끝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실질 구매력 보안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 민주당,尹 추경엔 공감... “협치는 유감”

“역대급 지인 내각” 비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처리 협조에 공감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마련한 만큼, 여야도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6일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첫 추경 시정연설을 한 데 대해 “그만큼 민생이 절박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추경안 처리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희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는 구하고,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고 제안한 데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직후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적극적으로 여야 협치 자세를 보였다는

것에 있어 많은 기대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께서 의회를 존중한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인 시정연설”이라며 “(시정연설 가운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예로 들며 여야 협치를 부탁하는 모습에서 정말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민주주의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 묻어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한 데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에 대해 민주당은 공감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초당적 협력’ 토대를 만드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며 1기 내 각 편성에 대해 특정 학교·지역·경력자 위주의 역대급 지인 내각이라고 비판한 뒤 “연설에서 예를 든 협치의 기본 전제부터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최영훈 기자

## 이재명 “이순신 장군도 13척으로 이겼다”

6·1 지방선거 승리 자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이 16일 “이순신 장군도 13척 가지고 이기지 않았나”라고 물으며 6·1 지선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지선에서 목표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허니문도 이런 허니문이 없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 때는 (대선 이후 지선이) 1년 공백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제주, 대구, 경북을 빼고 다 이겼다. 이번에는

(공백이) 20일도 안 돼 치러지는 건데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한 곳이라도 이긴다면 승리라고 본다.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 태풍, 돌풍의 핵이 인천”이라며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이를 통해 강원·충청 지역까지 승리를 확대해야 한다.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께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희망을 나눴던 분들이 모여서 투표하면, 포기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뉴스1

만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 이긴다”며 “심판만 가지고 세상이 제대로 될 수 없지 않나. 맨날 심판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소를 키울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증시·암호화폐 부진... 갈 곳 잃은 투자금, 은행에 몰린다

5대은행 지난달말 기준 수신잔액 1802.7조로 전월대비 15조 증가  
유가증권시장 2600선 무너지고  
비트코인은 18개월 만에 최저치

경기불황으로 주식·암호화폐시장 분위기가 가라 앉으면서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가 원인으로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총 수신 잔액은 1802조 6847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 145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잔액은 1조 1536억원 늘어난 660조 6399억원을 기록했다. 적금 잔액도 전월 대비 8055억원 늘어난 35조 9591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뉴스시스

수신잔액은 지난 3월 1787조 5396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월 대비 5조 3206억원 줄어 들었지만 지난 4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증시·암호화폐 부진으로 자금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유가증권시장은 17개월 만

에 2600선이 무너지면서 연일 연 저점을 갈아치웠다.

국내 증시 약세로 인해 고객예탁금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지난 12일 기준 60조 324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71조원)과 비교하면 11조원 감소한 수치다.

암호화폐시장 역시 분위기가 암울하

다. 비트코인은 지난 12일 2만 6000달러 대까지 하락해 18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2만 6000달러 밑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시총)도 1조 1400억달러까지 떨어졌고 거래량 역시 지난 4월 말 기준 2조 9440억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전년 동기(4조 7634억 달러) 대비 38.2% 급감했다.

이처럼 투자환경이 좋지 못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등 주요 국가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5% 인상했다. 또한 오는 6월과 7월에 회의에서도 빅스텝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전년 대비 8.3% 상승하면서 시

장 예상치(8.1%)를 웃돌아 물가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 역시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를 유지해야 환율과 국고채 장·단기 역전현상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역머니무브 현상은 올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 부진으로 은행으로 역머니무브가 지속되고 있어 수신 잔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 역시 이를 인지해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영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뉴스 기반 경제지표, 공식 통계보다 신속

한은, 생산·고용 등 15개부문 분석  
비교대상 통계 보다 0~9개월 앞서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가 비교대상 공식 통계에 비해 0~9개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 이슈 노트 ‘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에 따르면 최근 경기 예측 관련 많은 연구들이 뉴스 텍스트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실물 부문의 경우 고빈도 경제지표가 거의 전무하고, 공식 통계는 보통 한 달 이상의 공표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식 통계만으로는 정성적 정보를 예측모형에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했다.

한은은 경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산, 고용, 물가, 주가, 주택가격 등 15개 부문을 직접 선정하고, 각 부문별로 대상지표를 정해 이들 지표의 흐름을 예측하는 텍스트 지표를 각각 작성했다. 텍스트 지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사전 접근법(lexical approach) 방식을 문장별로 적용했다.

부문별로 텍스트 지표를 작성해 관련 공식 통계와 비교분석한 결과, 텍스트 지표가 0~9개월 선행시점에서 공식 통계와 0.35~0.73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1~7개월 선행시점에서는 대부분 유의한 그레인저(Granger) 인과성을 보이는 등 텍스트 지표가 경기 예측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내포했다.

‘전망’ 및 ‘예측’ 단어를 포함해 작성

한 물가전망 및 주가전망 텍스트 지표는 각각 소비자물가지수 및 코스피지수와 5개월 및 3개월 선행시점에서 0.73 및 0.65의 상관관계를 기록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뉴스 텍스트는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전망 등 정성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입수 가능하므로, 이를 종합하고 정량화해 경기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범석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연구반 과장은 “뉴스 텍스트의 정량적 활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경기동향 파악 및 경기 예측에 유용하다”라며 “정성적 방법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후면 에러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하나금융, 유엔 여성역량강화원칙 지지

탄소중립 추진 연합체 NZBA 가입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유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지지 선언 및 유엔 산하 글로벌 금융사들의 탄소중립 추진 연합체인 넷제로은행연합(NZBA)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지 선언을 한 WEPs는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글로벌compact(UNGC)가 공동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하나금융그룹은 WEPs 지지 선언을 계기로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여성인재 중용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그룹차원의 ESG 경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기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탄소 제로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여성인재 중용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그룹차원의 ESG 경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기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탄소 제로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사옥. /하나금융

배출량 목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ESG 기획팀 관계자는 “이번 WEPs 지지 선언과 함께 실질적인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기업문화 조성,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NZBA 가입을 통해 올 상반기 중에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이행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넷제로(Net-Zero) 경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케이뱅크, 1분기 순이익 245억... 74% ↑

고객수 확보, 여수신 잔액 성장 성과

케이뱅크가 올 1분기에 245억원의 잠정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 대비 74% 성장하고 지난해 연간 순이익 규모인 225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호실적의 원인으로 고객수와 여수신 잔액의 꾸준한 성장을 꼽았다. 올해 1분기말 케이뱅크 고객수는 750만명으로 지난해말(717만명) 대비 33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신은 7200억원 늘고 수신도 22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월 예적금과 챗봇지바스 등 수신상품의 금리를 인상했다. 같은 달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를 0.5%p 낮춰 1000억원 한도로 특판을 진행했고 3월에는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4%p 인하했다.

1분기 이자이익은 8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 비이자이익



케이뱅크 본사 전경. /케이뱅크

은 19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중저신용 대출 비중도 늘어 지난해 말 16.6%에서 올 1분기말에는 20.2%로 급증했고 4월말에는 21.7%까지 높아졌다.

서호성 케이뱅크행장은 “올해는 은행업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 유입 및 활동성 강화를 통해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 우리은행 보고방식 혁신 ‘위노트’

우리은행은 효율적인 문서작성 및 신속한 보고방식 혁신을 위한 협업툴 ‘위노트(We-Note)’를 전면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면 도입되는 ‘We-Note’(함께 문서를 작성하는 공간)는 클라우드 방식의 웹문서를 이용해 공동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필요한 문서를 빠르게 검색해 활용하는 등 본격적인 협업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We-Note’ 시스템 접속으로 문서확인 및 결재가 가능한 비대면 보고 체계를 구축했으며 각종 회의 시에도 태블릿PC를 활용한 페이퍼리스(Paperless) 시스템을 갖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및 태블릿PC를 이용해 문서작성·편집이 가능한 스마트오피스 환경도 구축해 재택근무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승용 기자

## 신한은행 ‘금리 5.5%’ 마이홈 적금 이벤트

청약 가입 만 39세이하 고객 대상

신한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5.5%를 제공하는 ‘신한 마이홈 적금 특별금리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 마이홈 적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당일에 가입할 수 있는 1년 제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저축한도는 1천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며 기본금리 연 1.6%, 우대금리 연 1.0%p, 특별금리 연 2.9%p를 적용해 최고금리는 연 5.5%이다.

이번 특별금리 이벤트는 오는 12월 30일 까지(10만좌 한정) 진행하며 1982년 5월 1일 이후 출생 고객 중 신한 마이홈 적금 가입 직전 1개월 내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었던 고객에게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진행한 헤이영 특별금리 이벤트(만 29세 이하) 대비 이벤트 대상을 확대(만 39세 이하)해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하는 고객에게 내 집 마련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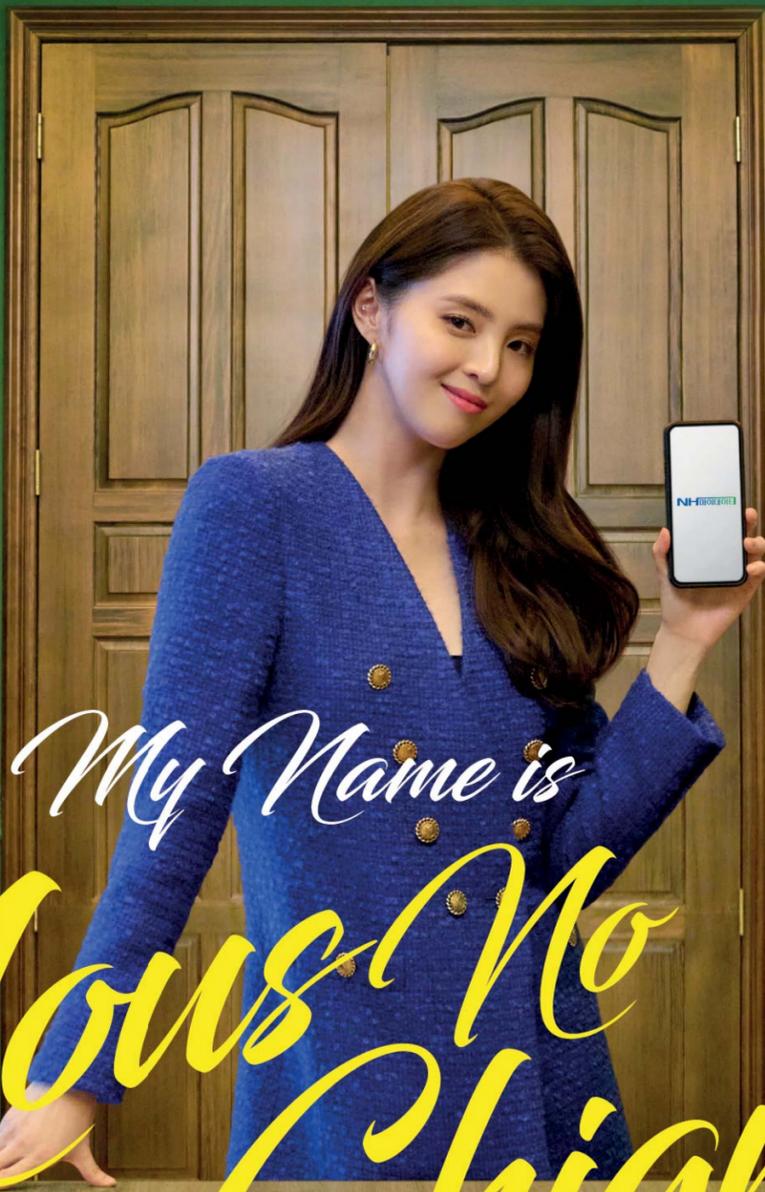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새는돈 막아 누수는 NO 철저하게 신용은 UP

흩어진 나의 데이터를 모아 자산관리부터 연말정산컨설팅까지  
한번에 샅틈없이 관리하는 새로운 금융 생활

## NH마이데이터



*My Name is*  
**Mous No Chignon**

누수노시용



###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에서 NH마이데이터를 만나보세요



자산현황부터  
소비패턴까지  
**NH자산+**



금융 일정  
꼼꼼하게 챙겨주는  
**금융플래너**



환급 많이 받는  
비법 알려주는  
**연말정산컨설팅**



내 차시세부터  
과태료 관리까지  
**내차관리**



우리 가족의  
숨은 혜택을 한눈에  
**맞춤정부혜택**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1-5638(2021.11.29~2022.11.30) ※서비스 관리 부서 : NH농협은행 데이터사업부

# 하늘길 열렸는데... LCC, 지원금종료·공항이용료에 한숨만

〈저비용항공사〉

노선 증편에도 코로나전 절반 수준  
“올 하반기 안에 적자 극복 어려워”  
정부, 공항이용료 추가 연장 재검토

항공업계가 국제선 항공편 증편과 방역 규제 완화 등으로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지만,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걱정거리는 아직 남아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 6월까지 지급될 수 있고 공항시설이용료 감면 혜택 등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연장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7월부터 고용유지 지원금과 공항시설이용료 감면 혜택 등이 종료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코로나 19 번이 바이러스 증가와 항공업계의 어려움은 감안해 지난 2월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조치를 취했다.

본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 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3월까지만 관할 직업안정 기관장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3년 연속 지원이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FSC와 LCC 항공기들.

/뉴시스

가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오는 하반기부터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매월 주 100회씩 국제선을 증편한다고 밝혔고 각 항공사가 국제선 증편에 나서고 있어 ‘항공 정상화’가 곧 될거라는 관측 때문이다. 정부는 7월부터는 매월 주 300회씩 증편해 7월 920회, 8월 1220회 등 11월에는 주 2420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LCC들은 “노선 증편을 서두른다고 해도 이제까지의 적자를 울

하반기 안에 다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이전 국제선 항공편이 주 4714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1월에도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LCC 관계자는 “LCC들이 대형항공사(FSC)들처럼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면 자체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역부족”이라며 “운항 편수를 코로나19 이전처럼 증편해주지 않고 지원금을 종료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대한항공은 화물 호조로 흑자 전환을 했기에 올해 4월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이 종료됐고 지금은 직원들의 유급휴업 수당을 자체 지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화물 호조로 자금 유동성 확보가 돼 있고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이 안 될 시 자체 지급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또 다른 LCC 관계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종료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늘려주는 증편 상황에 따라 국제선 여객 수요를 늘리고 있지만 당장 적자 탈출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급 휴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주요 항공사들은 공항시설이용료 감면 혜택도 고용유지 지원금의 종료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에선 공항시설이용료 및 상업시설 임대료 등으로 6개월 동안 약 47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항시설이용료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항공수요,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연장 중단에 무게를 실

고 있다.

LCC 업계는 이미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계 특성상 국제선 회복 전에 정부의 지원이 끊긴다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이 다시금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실제 국내 LCC들의 영업실적 회복은 묘연하기만 하다. 지난해 LC C별 영업손실은 제주항공이 3145억원으로 제일 컸고, 그 뒤로 에어부산 2039억원, 진에어 1852억원, 티웨이항공 1481억원 순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LCC 관계자는 “PCR 검사를 신속한 검사로 대체하는 등 국제선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변화가 있지만, 적자가 너무 커 당장 올해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번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결정도 지원금 종료 일주일 전에 확실히 발표 난 만큼 흑자나 들려올 연장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토요타 GR 86 프리미엄(왼쪽)과 스탠다드 모델 사이에서 이정우 선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토요타코리아

## 토요타, 4000만원대 정통 스포츠카 선택

엔지니어·드라이버, 개발·튜닝 참여

토요타가 정통 스포츠카를 더 쉽게 만들어냈다.

토요타코리아는 16일 GR86을 출시하고 서울 강남에서 공개 행사를 열었다. 가격은 스탠다드 4030만원, 프리미엄 4630만원이다.

GR86은 토요타의 모터스포츠 팀인 가주레이싱의 기술력을 녹여낸 모델이다. 엔지니어와 드라이버가 차량 개발과 튜닝에 직접 참여했다. 2012년 출시한 토요타 86 후속 모델로, 순정 상태로도 서킷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됐다.

엔진은 전작보다 400cc 큰 2.4리터 자연흡기 수평 대향엔진을 도입했다. 낮은 무게 중심과 부드러운 가속이 가능하다. 고회전 영역 가속력과 응답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변속기는 6단 수동으로 조합했다. 클러치 용량과 기어 강도를 높여 출력과 가속력을 높이고, 저점도 오일로 변속 감도 부드럽게 만들었다.

새로운 전용 FR 플랫폼은 무게 중심과 힙 포지션을 낮춰 코너링과 고속 주행 안정성을 높였고, 서킷 주행에서는 스핀을 억제하는 트랙모드를 통해 조작감을 배가했다. /김재용 기자 juk@

## LG이노텍, ‘비대면 사회공헌 포털’ 오픈

편리하게 참가 신청 가능

LG이노텍이 일상에서 쉽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마련했다.

LG이노텍은 최근 사내 온라인 사회공헌 포털을 신규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포털은 임직원들이 대면 봉사활동을 대체할 비대면 활동을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 300여명은 비대면 ‘공기정화 식물 기부’ 활동에 적극 참여 중이다. 사무실 한 칸에 반려 식물을 정성껏 키워 회사 인근 장애인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사회공헌 포털엔 온라인 기부 프로그램 ‘이노드림펀딩’도 새롭게 마련했다. 임직원 누구나 쉽게 후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 첨단기술·역동적 퍼포먼스 “답은 SUV”



아우디 ‘SQ5 스포트백’

기존 SUV의 부족함 완벽하게 충족  
3.0L V6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웃도어 문화가 확산되면서 공간 활용성이 높고 야외활동에 최적인 SUV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1분기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 판매량 비중의 절반을 넘어섰다. 차량을 구매하기 앞서 다양한 모델을 놓고 고민하지만 결국 답은 ‘SUV’라는 이야기 나올정도다. 다만 SUV는 일상의 편안함을 제공하지만 고성능 주행을 원하는 운전자에게는 아쉬움을 남겼다. 최근 만난 아우디 SQ5 스포트백은 공간성은 물론 첨단 기술과 역동적인 퍼포먼스 탑재해 기존 SUV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준다. 특히 가족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조금 양보한 운전자에게는 더 없이 좋은 모델이다.

SQ5 스포트백의 첫 인상은 쿠페형 SUV 특유의 곡선을 강조한 디자인의 ‘귀여움’과 함께 ‘날렵함’이 조화를 이뤘다. 스포트백 특유의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디자인에 차량 전면 그릴과 차량 후면에 기본 적용된 SQ5 배지, 앞뒤 범퍼 액센트, 그릴, 루프레일 및 윈도우 몰딩 등에 적



/김재용 기자



아우디 SQ5 스포트백.

용된 블랙 패키지로 S 모델만의 스포티한 감성을 더했다. 또 ‘레드’한 브레이크 캘리퍼를 올린 21인치 5더블스포크 터빈 스타일 휠은 정차해 있어도 역동적인 모습이며 실내에선 S 엠블럼이 새겨진 나과 가죽 S 스포츠 시트 등이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 충분했다.

실내 공간은 부족함이 없었다. 브랜드가 공개한 제원에 따르면 4690mm의 전장과 각각 1895mm와 1675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췄다. 휠베이스는 2825mm로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했다. 벤츠 GLC, BMW X3, 국산차 기준 스포티지 정도 생각하면 된다.

차량의 주행성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울려도에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까지 왕복 약 100km를 주행했다.

SQ5 스포트백은 모터스포츠의 DNA를 기반으로 민첩하고 강력한 주행성능을 자랑했다. 3.0L V6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 엔진과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다. 최고 출력 354마력, 최고 토크는 50.99kg·m의 강력한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가솔린 엔진을 장착해 정속하면서도 가속을 할 때마다 기분 좋은

엔진음으로 즐겁게 했다.

또 아우디의 상시 사륜구동 콰트로 시스템을 적용해 필요에 따라 토크를 앞뒤 차축에 다양하게 전달하며, 스포츠 디퍼렌셜은 뛰어난 트랙션과 핸들링을 제공한다.

자유로 주행 구간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매력적이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에 맞춰 차선을 유지하며, 앞차와의 일정 간격을 유지해 주행한다. 앞에 차량이 끼어들면 스스로 속도를 줄인다. 특히 차선 유지 기능은 운전자가 믿고 맡겨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럽게 작동했다. 수입차 브랜드 대부분 차선 중앙 유지보다는 이탈 방지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또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및 파크 어시스트,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등은 보다 편리한 주차를 도와준다.

SQ5 스포트백은 패밀리 SUV의 매력은 물론 고성능 모델에 대한 갈증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 아우디 SQ5 스포트백 TFSI의 가격은 9420만3000원이다. /양성문 기자 ysm@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IP 덕본 게임사... “트렌드 급변, 새 먹거리 지속 발굴해야”

(지식재산권)

‘잘 키운 IP하나 기업 1년 책임진다’ 국내 게임사들의 1분기 실적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IP로 희비가 엇갈렸다는 평이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3N을 비롯해 중견게임사까지 올해 1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는 각각 리니지W, 배틀그라운드, 오딘으로 나란히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각 사의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IP)가 효자노릇을 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넷마블, 컴투스 등은 적자 전환이라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앞서 게임사들과 희비가 엇갈렸다.

이같은 행보에 일각에서는 잘 키운 IP하나가 게임사 하나 먹여살린다는 후문이다.

우선 엔씨소프트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30% 늘어난 244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7903억 원을 거뒀다. 이같은 어닝서프라이즈 효과는 ‘리니지W’ 때문이다. 모바일 게임 리니지W는 혼자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3732억 원을 벌었다.

리니지M도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1159억 원을 벌어들이며 엔씨의 ‘리니지W, M, 2M’가 전체 매출의 80%인 6164억 원에 달한다.

크래프톤도 ‘배틀그라운드’를 업고 1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크래프톤은 올해 1분기 매출 5230억 원, 영업이익 31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프리티 더비



엔씨소프트 리니지W



카카오게임즈 오딘

/각사

3N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각사 ‘효자IP’ 앞세워 실적반등

넷마블·컴투스 등은 적자 전환 타사 IP 의존 높아 수익성 악화

업계 “트렌드 급변, 中 규제 등 신작출시 등 새 먹거리 속도내야”

대비 각각 13.5%와 37% 상승했다. 야기에 PC부문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1061억 원, 콘솔은 무려 274% 성장한 150억 원 늘었다.

이 중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39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배틀그라운드 IP의 위력을 입증하는 결과다.

크래프톤 측은 “무료화 이후 평균 월 간활성사용자(MAU)가 전 분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유료구매자도 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오딘’ 특수 효과를 입은 카카오게임즈도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라는 최대 영업이익을 견인했다.

카카오게임즈는 매출 2663억원, 영업이익 4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5%와 169.7% 증가하며 중견 게임사의 위상을 높였다. 이 중 오딘은 모바일 플랫폼 매출이 출시전 601억원에서 1772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지난 3월 오딘을 필두로 대만 시장에 진출했을 당시 약 5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글로벌 진출로의 첫 청신호를 켜다. 카카오는 신작 ‘우마무스메프리티 더비’를 출시하며 연매출 1조 원이 목표다.

반면 넥슨, 넷마블, 컴투스 등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정체를 맞이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는 IP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평이다.

넥슨은 매출 9434억원(910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3% 늘었지만, 영업이익 3992억원(385억엔)으로 11% 감소했다. 하지만 2분기 더파 모바일로 2분기

에는 매출, 영업이익 모두 약 40% 이상 증가하면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타사의 존도가 높은 넷마블이 자사IP를 구축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컴투스와 컴투스홀딩스는 각각 27억, 32억 원이라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컴투스는 역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지만 자회사들이 적자를 내면서 종합적으로 실적이 감소했다.

필터비도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4%, 60.3% 감소하면서 앞으로 출시될 신작 ‘붉은사막’의 기대가 크다는 평이다.

이같은 실적으로 인한 게임사들의 희비를 놓고 업계는 IP가 실적을 이끈다는 분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엔씨, 카카오, 크래프톤 모두 실적 반등에 성공한 이유는 각사의 IP 때문이다. IP를 앞세워 국내외 시장에서 호실적을 기록하는 전략

이 통한 것”이라며 “결국 탄탄하고 흥행이 보장된 IP가 게임사들의 좋은 실적을 견인한다는 게 입증됐다. 게임사 대부분이 신사업에 뛰어 들고 있는 현재 그에 따른 투자비용을 메꿀 수 있는 건 IP뿐이다”고 말했다.

다만 흥행 치트키 ‘IP’를 보유한 게임사들도 안주하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 트렌드가 급변하고, 중국 등 국가 규제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 IP 발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IP확보를 위해 타사들과의 협력을 하는 등의 신작 출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IP 발굴에 따른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소스도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지속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30년 된 리니지 역사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 IP도 세월의 무게와 비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대화 나누며 성장하는 AI... SKT의 ‘따뜻한 기술’ 진화

성장형 AI ‘에이닷’ 공개 고도의 자연어 처리, 감정 분석 나만의 캐릭터 통해 관계 강화

#SK텔레콤이 새롭게 선보인 인공지능(AI) 서비스인 A. (에이닷)을 호출해 “어버이날 선물은 어떤 것이 좋을까?”를 물었다. 에이닷은 카네이션과 용돈 박스를 추천해줬다. “좀 더 색다른 게 없을까?” 물으니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라는 추천을 해줘 선물을 고르는 데 AI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었다.



이현아 SK텔레콤 AI&CO 담당이 16일 본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성장형 AI 서비스 ‘A.(에이닷)’를 소개하고 있다. /SKT

SK텔레콤은 16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새로운 일상의 메이트’가 되어줄 고객과 함께 키워 나가는 성장형 AI서비스인 ‘A. (에이닷)’의

안드로이드 오픈 베타 버전을 이날부터 윈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A.’은 ‘따뜻한 기술’로 고객의 불편을 바로잡고, 모바일 환경에서 고객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SKT의 ‘AI 서비스 컴퍼니’를 향한 지향점을 담고 있다.

이현아 SK텔레콤 AI&CO 담당은 “앱 마켓에 등록된 앱이 5만개에 이르고 개인 휴대폰에 설치된 앱은 100여개에 이르는데, 이 중 자주 쓰는 앱은 1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며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서칭 코스트는 높여져 고객들이 불편한 데, 서칭코스트를 낮추면서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는 ‘일상의 메이트’가 되어줄 AI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에이닷 앱을 설치하면 나만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3번째 캐릭터

를 선택한 후 보이스를 ‘씩씩한 반말’을 선택했다. 이어 캐릭터의 닉네임을 설정하니 대화가 시작됐다.

개인의 프로필 정보에서 엔트리 포인트가 보이는데 스토어에 보유한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보여준다. 옷을 고르고 난 후 머리장식을 고르고 안경을 씌우면 밋밋했던 캐릭터를 산뜻한 캐릭터로 변화시킬 수 있다.

사용자 참여형 Q&A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지식인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지식인처럼 답변이 달리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답변자를 예측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여기에 ‘생일 파티를 하려는 데 서울에 대한할 곳에 있을까’라는 답변을 다니 용산구의 한 극장을 추

천해줬다. 또 미디어 기능에서 “BTS 노래 불러줘”라고 하니 노래를 불러줬고 하단에는 리프트 등 컨트를 기능이 제공됐다. 또 “영화 보여줘”라고 하니 ‘웨이브 라이트’ 기능으로 연결됐다. 미디어 기능을 이용하면 앱을 별도로 켤 필요가 없이 플로우 웨이브의 콘텐츠를 소개해준다.

이현아 담당은 “캐릭터는 시각화된 AI 에이전트 서비스로 커스텀 기능을 통해 자신 만의 유니크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외부 지식재산권(IP)과 제휴를 맺고, 연말에는 내부 크리에이터가 직접 캐릭터를 제작하는 협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이닷은 고도의 자연어 처리 및 감정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나만의 캐릭터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채윤정 기자 echo@

## 삼성전자, 창문형 에어컨 ‘윈도우핏’ 출시

삼성전자 창문형 에어컨이 더 편리해졌다.

삼성전자는 2022년형 창문형 에어컨 ‘윈도우핏’을 16일 출시했다.

이번 모델은 창문 일체형 설치 프레임을 적용해 설치를 편하게 만들고 공간 활용성도 높였다. 업계 최초로 설치 환경에 따라 전용 프레임 종류도 선택

할 수 있다. 영림프라임사시와 설치 환경을 연구해 공동 개발했다.

전용 설치 프레임은 ▲창턱에 거는 형태로 설치해 실내 쪽 창문을 닫을 수 있는 ‘창턱 거치형’ ▲창문 레일에 매립해 창문과 일렬로 라인을 맞춰 슬림한 외관을 구현할 수 있는 ‘창문 매립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 기능도 추가됐다. 스마트싱스 앱으로 에어컨을 끄거나 켜는 것은 물론 ‘웰컴 쿨링 & 어웨이 케어(에너지 절약알림)’ 기능도 탑재했다.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를 통해 사용 전력량 확인도 가능해 효율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다.

냉방 성능은 그대로 적용했다. ‘2중 바람날개’가 냉기를 빠르게 순환시키는 강력 회전 냉방으로 방안 구석구석 바람을 보내준다. /김재용기자 juk@

## 헬로모바일, 모토로라 5G폰 단독 출시

헬로모바일이 9년 만에 돌아온 ‘모토로라’와 손잡고, 고가폰 전성시대에 소비자들 사이 ‘실속 대안’을 제시한다.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모토로라 5G폰 2종을 국내 단독으로 출시, 오늘부터 직영몰을 통해 사전예약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헬로모바일은 블랙베리·레이저폰에

이은 모토로라의 고사양 5G 중저가폰 출시로, 프리미엄 중심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장한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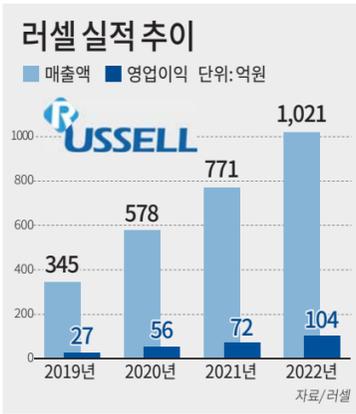
모토로라의 프리미엄급 5G 중저가폰을 알뜰폰 LTE 요금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어, 실속과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공식 출시는 5월 말 진행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 반도체 장비 호황에 매출 ‘훨훨’... 올 20% 이상 상승 전망

## 株라쿨라의 종목

### 러셀

올 장비 투자규모 1000억달러 예측  
매출액 771억 영업이익 73억 예상  
반도체 생산능력 꾸준히 증가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김예지 연구원은 '러셀'에 대해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 및 장비의 수요 증가로 고객사의 중고 장비 구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자회사 러셀로보틱스의 기업공개(IPO) 추진으로 자회사 상장에 따른 재평가도 기대된다"고 16일 밝혔다. 러셀은 지난 2006년 3월 설립된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중고 반도체 증착 장비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해 재판매하는 리퍼비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2020년 무인운반차를 제조하는 티엠에이를 인수해 스마트팩토리 관련 자동화 장비 제조 및 판매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본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다양한 분야의 수요 증가로 반도체 생산능력(CAPA)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비 수요의 증가로

올해 장비 투자 규모는 10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 병목 현상으로 반도체 제조설비 리드타임은 12개월에서 18개월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신규 반도체 장비의 부족으로 중고 장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김예지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IT 디바이스 수요 폭증으로 전력반도체(PMIC),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등 8인치 파운드리에서 생산되는 칩이 크게 늘어 구식으로 취급되던 8인치 장비 부족이 극심해졌다"며 "따라서 러셀의 8인치 중고장비를 찾는 고객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20% 이상의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러셀의 경쟁력은 AMAT 등 다양한 중고 장비를 구매해 고객사의 니즈에 맞게 개조할 수 있는 리퍼런스 및 메모리 반도체용 8인치, 12인치 장비를 모두 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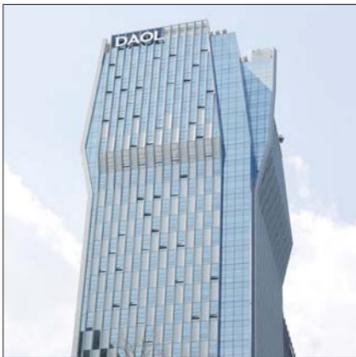
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러셀은 리퍼런스를 바탕으로 SK하이닉스형 매출비중 50~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매그나칩, DB하이텍, SMIC 등 다양한 반도체 제조회사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완화로 SK하이닉스 중국 D램 공장 납품이 재개됐고, 지난해 지연됐던 SK하이닉스 키 파운드리 투자 재개와 주요 고객사인 DB하이텍, 인피니온 등 파운드리 고객사의 추가 수주가 하반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러셀은 지난 2020년 인수한 무인자동화기계(AGV) 제조기업인 러셀로보틱스를 올해 하반기 상장할 예정이다. 러셀로보틱스는 설계 및 제작을 모두 직접 할 수 있는 국내 '무인운반차' 최대 리퍼런스를 보유 중이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상장 준비를 위해 2월 한국투자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

고, 현재까지 한국투자증권 및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와 투자유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리서치알음은 러셀의 2022년 매출액 771억원, 영업이익 73억원을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3.4%, 30.3% 증가한 수치다. SK하이닉스, 매그나칩 등 고객사의 8인치, 12인치 중고 장비 수요 확대와 무인지게차의 현대차, LG유플러스 등 국내외 대기업들의 고객사 확대 및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추가 전망은 '긍정적'으로, 적정주가는 5000원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적정주가는 2023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238원에 추가수익비율(PER) 18배를 적용했다"며 "PER 18배는 서플러스글로벌 등 반도체 중고 장비 업체 평균 PER 10배, 무인지게차 관련 업체 평균 29배를 합산해 평균을 냈다"고 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다올證 영업이익 675억... 분기 사상 최대

(1분기)

리스크 관리 강화, 우량 딜 발굴 주요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익구조 구축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다올투자증권이 1분기 영업이익 675억원을 기록하며 증권사 전환 후 분기 영업이익 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3년 연속 사상 최대이익 달성에 이어 올해 1분기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675억원, 당기순이익 5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6%, 14.5% 증가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둔 투자릿수 성장이다. 실적향상의 주요요인은 강화된 리스크 관리와 우량 딜 발굴에 있다. 철저한 위험관리로 금리상승과 주식시장 하락에 대응했고, 강화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1분기투자은행(IB)부문의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했다. PI부문은 주식시장 하락에도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채권영업은 금리 인상 등 악화된 시장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이익을 실현했다. 계열회사 또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다. 유진저축은행에서 사명을 변경한 다올저축은행은 1분기 영업이익 250억

원, 당기순이익 188억원을 기록했다. 대출잔액은 전년 대비 2764억원 증가해 3조 5905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다올자산운용은 누적운용보수 수익이 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억원 증가했다. 고보수상품 판매의 호조로 평균 운용보수를 또한 19bps(1bps=0.01%)로 1.2bps 증가해 향후 수익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운용자산(AUM)은 지난해 연말 대비 2% 증가해 15조6000억원으로 성장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실적 방어에 주효했다"며 "시장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회사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5월 2일 신용평가등급 공시를 통해 다올투자증권의 기업신용등급을 A0(안정적)으로 부여했다. /박미경 기자

## 외국인 지난달 국내 주식 5.3조 팔았다

4개월 연속 순매도세 이어져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5조 3000억원 어치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5조294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피시장에서 5조162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320억원을 순매도했다.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는 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2조9000억원)과 아시아(1조6000억원)에서, 국가별로는 영국(1조8000억원), 싱가포르(1조3000억원) 등에서 한국 주식을 순매도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외국인은 같은 달 국내 채권의 경우 4조6000억원을 순매수하고 3조9700억원을 만기상환하면서, 총 360억원 순투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3000억원), 미주(9000억원)에서 채권에 순투자했다. 투자자들은 국채는 1조5000억원이 순투자한 반면, 통안채는 1조5000억원을 순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주식과 채권을 더한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액은 총 919조4000억원 규모다. 이로써 외국인이 가진 상장주식은 4월 말 기준 696조2000억원으로 시총의 26.7%를 차지했다. 국내 채권은 총 223조2000억원으로 상장잔액의 9.6%를 보유하고 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 메리츠증권 해외 주식·파생상품 수수료 인하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 대상

메리츠증권이 올해 말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해외파생상품 거래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디지털금융센터를 관리점으로 지정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미국 주식 0.045%, 중국·홍콩·일본 주식 0.07%의 우대 수수료율로 온라인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이벤트 대상 고객은 미국 CME(시카고 상업거래소) 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 55개 품목을 계약당 1.98 미국 달러(USD)로 거래할 수 있다. 해외주식과 해외 파생상품 모두 업계 최저수준의 거래 수수료율이다. 단, 농·축산

물과 마이크로 품목은 제외된다. 거래 수수료 인하 이벤트와 함께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도 동시에 제공한다. 디지털금융센터 고객이 온라인으로 환전하는 경우 미국달러(USD)는 90%, 홍콩달러(HKD)·일본엔(JPY)·중국위안(CNY)·싱가폴달러(SGD)·유로(EUR)·파운드(GBP)는 80%의 할인된 환전수수료율을 올해 말까지 자동 적용한다. 단, 싱가포르달러, 유로, 영국과 온드는 해외파생 거래고객에 한한다. 메리츠증권은 거래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6일부터 미국 주식시장 애프터마켓의 거래시간도 1시간 연장한다. 현재 오전 6시까지인 애프터마켓 거래시간은 오전 7시까지 늘어나게 된다. /박미경 기자

## 신한금융투자 '알파TV' '재건축 투자' 콘텐츠 공개

신한금융투자가 유튜브 '신한금융투자 알파TV'의 부동산 코너 '꼭다리, 부동산!' 2회차에서 '재건축 투자'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꼭다리, 부동산!' 2회차에서는 재건축 투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좋은 매물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지분 쪼개기와 뚜껑 매물 등 부동산 재건축 투자 시 주의할 점들에 대해 안내한다. 부동산 투자 컨설팅 전문가인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 장소희 수석연구위원이 어렵지만 꼭 알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박미경 기자



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 조감도.

/현대건설

## 현대건설, 광주 광천 재개발 시공사 선정

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일원 25만446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3층 공동주택 5006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교통과 상업의 중심에 위

치한 광천동은 국내 최대 규모의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재개발사업에 광주광역시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적용, '디에이치 루체도르(THE H LUCEDOR)'를 단 지명으로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세계적 건축명가 SMDP와 손을 잡고 재개발사업 단지 디자인을 구현한다. 광주천, 무등산 소나무, 햇살 등 광주의 역사와 자연을 형상화한 5가지 타입의 외관 디자인으로 세련된 건축미와 역사적 상징성을 담아낼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kdh@

세상에~이렇게 저렴한 분양가격에 놀랐습니다!!

# 5년 전 분양가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극대공영

## 계약면적 3.3㎡당 500만 원대

부산신항  
로얄팰리스 1차



[전 세대 풀옵션 투룸 복층형 프리미엄 오피스텔]

**87㎡B**  
464실

- 전용면적 47.9701㎡
- 서비스면적(복층형) 26.4464㎡
- 공급면적 66.0327㎡
- 주차장 20.9902㎡
- 계약면적 87.7571㎡



※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투자금 3천만 원대 투자로 월세 65만 원 확정

실투자금이란? 분양대금에서 대출금액과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VAT별도)

### 수익성

- 전 세대 투룸 복층 - 752실
- 주차대수 872대 (넘치는 주차장)
- 신항만·물류·녹산산업단지·트레일러 종사자 등 가덕 신공항 개발의 배후 수요 예상자
- 보증금 1,000만 원 65만 원 신규 수요 대기 중(넘치는 임대 수요)
- 주변 10km 이내 최근 3년 동안 공급 없었다.
- 주변 10km 이내 최근 2년 이내 공급 계획이 아직 없다.

### 환금성

- 5년 전 분양가로 분양하다 보니 시세차익 발생, 최소 5천만 원~1억 원 정도
-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계약면적 3.3㎡당 500만 원대 분양
- 주변 땅값이 5년 전보다 2~3배 올랐다.
- 최근 현장에서 가까운 명지지구 오피스텔 분양가 계약면적 3.3㎡당 1000만 원대 분양 중

● 청약계좌: KB국민은행 079801-04-157925

● 예금주: KB부동산신탁(주) (청약금 100만 원, 미계약 시 전액 환불됩니다.)

- 1가구 2주택 제외
- 선시공 후 분양
- 5년전 분양가
- 잔금대출 75%
- 전세대 2룸 복층형
- 월세 65만 확정

분양문의 **1533-0512**

※ 선착순 계약자 혜택: 취득세 전액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 ‘스마일클럽에 쓱~’ 신세계, 멤버십 유니버스로 웃을까

‘빅스마일데이’ 대대적 혜택 과시  
정식 서비스 개시 나흘 만에 행사  
행사 통해 멤버십 회원 유치 전략  
막대한 비용 회수 등 수익성 우려

신세계 그룹의 통합 멤버십 스마일클럽이 통합 프로모션 ‘빅스마일데이’에서 처음으로 대대적인 혜택 과시에 나선다.

이번 빅스마일데이 중별 스마일클럽 실적은 스마일클럽이 e커머스의 왕좌를 신세계에 안겨 줄지 가능성 좋은 기회다. 좋은 실적은 하반기 모습을 드러낼 신세계의 온·오프라인 통합의 성공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신세계가 회원 유치를 위해 쏟아낸 혜택을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들은 비용 회수가 가능 할지 의문을 표하며 수익성을 우려 중이다.

16일부터 신세계 그룹 소속 대표 e커머스 채널 SSG닷컴과 G마켓, 옥션을 아우르는 프로모션 빅스마일데이가 시작했다. 종합 몰 외에도 W컨셉과 이마트도 스마일데이에 참여한다. 신세계는 지난달 27일 통합 멤버십 스마일클럽을 공개 후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멤버십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G마켓과 신세계그룹 홍보 모델들이 16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상반기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번 빅스마일데이를 보는 눈이 많아진 데에는 스마일클럽 정식 서비스 개시 후 맞은 첫 초대형 프로모션이자, 여기에 신세계 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는 탓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빅스마일데이는 지난해 말부터 지마켓글로벌과 신세계 양사가 함께 TF팀을 꾸리고 행사를 준비했다.

신세계가 공을 들인 만큼 이번 빅스마일 데이는 역대 스마일데이 중 가장

큰 규모로, 참여 브랜드는 지난해 대비 10% 늘어났고 대형 스폰서십 브랜드도 2배 많다. 온라인·쇼핑몰만의 행사였으나 이번 빅스마일데이부터는 이마트가 함께 참여하면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행사로 거듭났다.

빅스마일데이가 역대 최대 행사로 열리는 것은 통합 멤버십 스마일클럽의 중요성 때문이다. 통합멤버십 출범 나흘만에 열린 이번 빅스마일데이는 스마

일클럽 회원에게 더 큰 혜택을 쏟아낸다. 신세계물, 신세계 백화점까지 연계한 할인 쿠폰은 물론 매년 품귀현상을 일으키는 스타벅스 서머 e-프리퀀시 상품도 스마일클럽 회원에 한정해 판매한다.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당장 비용을 지출할 필요도 없다. 신세계는 오는 31일까지 스마일클럽 신규 및 재가입 고객 전원에게 멤버십 무료 이용 2개월을 제공하고 유지할 경우 멤버십 기간 1년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이처럼 신세계가 멤버십 통합 후 스마일클럽 회원 유치에 공들이는 데에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가 e커머스의 새로운 성공공식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쿠팡은 이를 통해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22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54%에 이르는 매출 성장에 성공했다. 같은 시기 이마트와 SSG닷컴, 지마켓글로벌 매출을 모두 합쳐도 18조원대다. 쿠팡은 적자까지 감수하고 확장한 멤버십 서비스에서 질주 동력을 얻었다. 월 2900원에 무료배송, 문자마 반품 등을 모두 제공하면서 쿠팡 멤버십 회원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쿠팡

와우멤버십 가입자 수는 90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 4분기(10~12월) 한 번이라도 쿠팡에서 구매한 적이 있는 활성 고객수는 1794만명이며 전년 동기(1485만명) 대비 21% 증가했다. 고객 1인당의 평균 구입액은 34만원에 달한다. 쿠팡은 그동안 과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서 회원을 유치하며 연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감내했다. 충성고객이 확보된 쿠팡은 다음달부터 멤버십 서비스비용을 4990원으로 인상하고 수익성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신세계가 밀어붙이는 스마일클럽의 과격적인 혜택 속에서는 쿠팡처럼 당장 수익을 내겠다는 계산보다는 잠재고객을 모두 잡겠다는 속내가 보인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하는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e커머스 업계는 말 그대로 치킨게임 중인데, 적자를 면한 기업이 있기는 한지 궁금할 지경이다”며 “신세계가 빅스마일데이와 스마일클럽의 컬래버를 통해 회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세계 계열사 전반에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도는 확실하지만, 과연 이번에 지출한 비용이 모두 회수 가능한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NFT 입은 패션, 재테크·커뮤니티 등 ‘다채’ ‘출범 6개월’ SK스퀘어, 영업이익 3802억

NFT신발 신고 뛰며 암호화폐 채굴  
코오롱스포츠, NFT 커뮤니티 선배  
나이키, 정품 인증서 토큰 발행도

패션업계에서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을 연결해 온·오프라인의 통합을 구현해내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그중에서도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는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나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트렌드에 발 빠른 패션업계는 NFT 발행 등으로 메타버스 세계에 진출한 뒤 한 단계 진화된 방식의 운영으로 변모를 꾀하는 중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는 블록체인의 전문가가 만든 인플루언서 기반의 NFT 브랜드 ‘사이고스트스쿼드’와 협업하고 유저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실과 웹3.0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이고스트스쿼드를 활용해 2030세대가 주인 유저들이 유령 캐릭터를 자신의 NFT로 소유하고 커뮤니티를 이루도록 한다.

코오롱스포츠는 ‘NFT 컬처’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커뮤니티 형성에



코오롱스포츠가 최근 NFT 브랜드 사이고스트스쿼드와 협업하기로 했다. /코오롱FnC

열정적인 사이고스트스쿼드 프로젝트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코오롱스포츠X사이고스 모델 선배대회’도 진행 중이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NFT 운동화를 종류별, 가격별로 구입하고 현실서 운동하면 코인이 채굴되는 투자도 생겨났다. 스테픈(STEPN) 투자라고 해서 앱을 깔아 가입하고 맘에 드는 운동화를 구입한 후 러닝 또는 걷기를 하면 일종의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데, NFT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서 운동화는 실제 고무로 만들어

진 운동화가 아니라 NFT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가지고 가격에 따라 구매 가능하며 운동화 종류는 워커, 조거, 러너, 트레이너 등으로 나뉜다. 워커는 1~6km/h 정도로 걷는 운동, 조거는 4~10km/h의 속도로 빠르게 걷는 조깅이다. 러너는 8~20km/h로 달리는 운동이고, 트레이너는 모든 운동을 아우른다. 또 운동을 하고 나면 NFT 운동화가 마모돼 수리를 해야 하는 개념이다.

앞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NFT 기술을 활용해 정품 인증서 역할을 하는 토큰을 발행함과 동시에 NFT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신발 디자인을 탄생시켰으며, 다시 NFT와 실물 제품에 연결하는 기술 ‘크립토킵스’를 상표등록 및 기술특허 취득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NFT는 이처럼 메타버스 기반의 콘텐츠 및 커뮤니티에 대한 저작권, 실물이 없는 패션 상품 자산에 대한 증명서 등 현실과의 연계성을 가지며 관련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원미 기자 silverbeauty@

“주주가치 극대화 방안 검토 중”

SK스퀘어의 2022년 1분기 실적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3211억원, 영업이익 3802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SK스퀘어는 투자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투자전문 회사로서 연결 실적에는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실적과 지분법 평가 손익이 반영됐다.

이번 1분기 별도재무제표에는 SK하이닉스, SK플래닛 등 자회사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 2770억원이 반영됐으며,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기반으로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

배당금수익의 구성은 SK하이닉스의 2021년 연간 배당 2250억원과 SK플래닛의 SK엠앤서비스 매각으로 인한 배당 500억원 등이다.

SK스퀘어는 올해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한 SK하이닉스로부터 분기별 주당 300원의 배당금수익과 별도의 추가 배당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부터 주당 고정 배당금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리고, 잉여현금흐름의 5%를 추가로 배당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향후 SK하이닉스-솔리다임의 낸드 경쟁력 기반 재무실적 개선에 따라 우호적인 주주환원정책 기조가 확대된다면 SK스퀘어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스퀘어는 출범 6개월여만에 블록체인의 메타버스 등 미래 ICT 혁신을 이끌 넥스트플랫폼 영역에 속하는 기업 4곳에 총 1553억원을 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투자대상 기업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873억원), 3D 디지털휴먼 제작사 온마인드(80억원), 국내 최대 농업혁신 기업 그린랩스(350억원), 글로벌 게임사 해긴(250억원)이다. 이로써 SK스퀘어의 포트폴리오 회사는 출범 전 16개에서 현재 20개로 늘었다.

SK스퀘어는 기업가치를 증대하고 탁월한 중장기 재무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반도체 밸류체인과 넥스트플랫폼 영역의 신규 투자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조원 이상의 투자 재원을 확보했으며, 추가로 국내외 투자자들과 공동 투자자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규 투자 이외에도 기존 포트폴리오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보도 계속된다.

국내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강력한 사업 제휴를 추진하고 새로운 볼트온(Bolt-on)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일례로 올해 3월 SK스퀘어의 자회사 티맵 모빌리티가 모빌리티 사업 강화를 위해 공항버스 업체 2곳을 약 1979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SK스퀘어는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향후 수익 실현함으로써 더 큰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윤용영 SK스퀘어 CIO(Chief Investment Officer)는 “SK스퀘어는 출범 후 여느 투자회사들보다 발 빠른 신규 투자를 집행해 왔다”며, “올 한해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과 웹3.0시대를 주도할 넥스트플랫폼 영역에 투자를 가속화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 필어비스, 개인정보보호관리 인증 획득

필어비스가 글로벌 가장 권위있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했다.

16일 필어비스는 국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인증 ‘ISO/IEC 27701’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IEC 27701’은 국제 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

회(IEC)가 제정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다. 국제 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IEC 27001’ 받은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84개의 통제 항목과 개인정보에 대한 생명 주기 별 보호 활동의 적절성 심

사를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필어비스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비롯해 글로벌 각 지역의 개인정보 규제 강화 흐름에 적극 대응을 위한 방법으로 ‘ISO/IEC 27701’ 인증을 획득했다. 2021년 취득한 국제 표준 정보보호 인증 ‘ISO/IEC 27001’ 범위를 해외 오피스로 확대하는 등 전자 차원의 보안도 강화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소상공인 자립·재도전 위해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취임**  
“자영업자 완전한 회복, 가장 시급  
벤처 규제 해소, 글로벌화 추진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소상공인 자립·재도전 지원, 혁신  
막는 규제 해소, 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  
행 개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이영 중소벤처기  
업부 장관이 16일 취임 일성을 통해 밝  
힌 주요 키워드다.

이영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 있  
는 중기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우  
리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소상공  
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  
행하고 저금리 용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열고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  
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  
데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  
예산은 36조4000억원이다.

이 장관은 또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글로벌화  
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과감  
한 규제→신산업 육성→민간 주도 성장  
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기술탈취 등 오랜

기간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바로잡아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을 조  
성해 나가는 등 모든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IT 보안 솔루션 회사를 창  
업해 20년간 이끌어온 기업인 출신이  
다. 정치권에 몸담기 전엔 한국여성  
벤처협회장을 맡으면서 정부를 향해 규  
제 개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취임사 서두에서 중기부

직원들에게 자신을 “카리스트에서 암호  
학을 전공하고 20년간 IT 벤처를 운영  
한 공학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과생 천국인 국회는 참 낯선 곳이었고,  
(자신이)마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된 것 같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대폭  
확대 ▲인재 양성 및 기술적 고도화 ▲  
스마트공장 질적 향상 등도 약속했다.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  
기업, 혁신기업 등 대한민국의 ‘9983’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 직  
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장관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투철  
하고 헌신적인 ‘공직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닌  
‘기업가 정신’을 더해 작은 문제라도 끝  
까지 해결해 최선의 답을 도출해내자”  
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우리부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  
고 협업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냉철한 판단  
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제값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영상을  
포함한 7장 짜리 프리젠테이션도 준비  
해 발표했다. 그는 “중기부가 쫓기듯,  
단기간에,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거나,  
그저 크게 비판받지 않으려고만 하거  
나, 생색내는 일에만 몰두해선 안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벤처  
와 소상공인의 역량이 대한민국을 이끌  
어 나가고,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이 되  
게 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소  
벤처기업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이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전임 권철승 중  
기부 장관과 환담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하게  
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면  
서 “앞으로도 국정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갈 것”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기중앙회, 中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포스코와 맞손... 참여기업 모집  
올 100개사에 최대 2.4억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포스코가 손잡고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가  
로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포스코와 ‘2022년 대·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  
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84개사  
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포스코는 최근  
3년간 총 120억원을 지원했다. 중기중앙  
회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전담기관)  
및 포스코와 함께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  
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포스코와 거래관  
계가 없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지원유형에 따라 사업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의 60% 이내에서 8400만~2억40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 수준 스  
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경우 2000만원의  
사업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적응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  
고·친환경·안전 등 ESG 분야 스마트공  
장 구축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추진단(포스  
코, 포스코인재창조원, 포스코ICT, 포  
항산업과학연구원)을 활용해 사전진단  
부터 사후 A/S까지 병행하는 현장 밀  
착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기업에는 포스코의 혁신  
방법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포스코의  
생산현장 경영혁신기법인 QSS(Quick  
Six Sigma) 컨설팅과 동반성장지원단  
을 활용한 중소기업 현장방문과 지도활  
동도 지원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  
회, 중기부는 포스코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중  
앙회는 중기부, 대기업과 함께 상생형 스  
마트공장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해 중소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구축, ESG  
경영, 탄소중립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  
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소진공, 2분기 ‘이달의 소상공인’ 선정

선정자에 홍보기회·부상 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달의소상  
공인’을 올해 2·4분기부터 선정한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달의 소상  
공인’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온  
소상공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 분기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당 분야는 ▲적극적인 방역활동으  
로 코로나 극복노력, 온라인 진출확대,  
스마트 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등을 통  
해 모범이 되는 ‘소상인’ ▲스마트 기술  
을 활용한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 연구  
개발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모범이 되  
는 ‘소공인’ ▲마케팅 및 가격, 원산지  
표시, 친절, 지역 공동체 기여 등 경영  
혁신을 이루고 타 시장에 모범이 되는  
‘전통시장 상인’으로 구분해 분야별 1  
명씩 선정한다.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영업 노

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  
인으로서, 3년 이상 사업체 경영을 기본  
요건을 갖춘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이달의 소상공인’으로 뽑히면  
소진공 이사장 표창 수여, 홍보기회 제  
공, 부상 수여 등 혜택을 준다. 대상자 선  
정은 업력, 매출액, 소상공인 인식개선,  
성과의 적정성, 벤치마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개 분야별로 각각 진행한다.

조보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  
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경영혁신을 이룬  
소상공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달의  
소상공인’을 기획했다”며 “점차 규모를  
확대해 우수 소상공인을 꾸준히 발굴·  
홍보 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청 희망 소상공인은 소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갖춰 6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 창진원, 해외전시회 참가 스타트업 모집

총 35개사 안팎 접수

창업진흥원이 해외 시장 개척과 네트  
워킹 구축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2년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  
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16일 창진원에 따르면 이번 모집하  
는 해외전시회는 올해 10월 싱가포르 센  
토사에서 열리는 ‘SWITCH 2022’, 11월  
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예정하는 ‘SLUS  
H 2022’이다. 모집규모는 SWITCH의  
경우 2015년 5월 16일 후 창업한 기업 15  
개사 안팎, SLUSH는 2019년 1월 1일 이  
후 창업한 기업 20개사 안팎이다.

올해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

은 전시회 참가 4개월 전 창업기업 선발  
을 끝내 참가기업을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사전  
교육 및 피칭대회 수상 멘토링 등) ▲K-  
STARTUP관 운영을 통한 기업 홍보 ▲  
기업지원금(SWITCH 2022 최대 170만  
원, SLUSH 최대 250만원)등을 종합적으  
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은 4개월 간의 사전 교육·멘토링을 통해  
창업기업이 글로벌 창업 생태계 및 참가  
전시회를 이해하고 해외 시장에 맞는 BM  
구축, 성공 사례 등을 파악하며 글로벌 진  
출을 위한 준비를 한다. /김승호 기자

## 여경협 여성가장 창업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가족을 부양  
하는 생계형 여성가장의 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5월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

16일 여경협에 따르면 이 지원사업은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로  
신청요건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여성가  
장은 창업에 필요한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리 2%의 고정금리로  
2년씩 최장 6년까지 지원받는다.

이미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창  
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1  
년 미만인 사업주는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듀오백, 메쉬의자 ‘에어로 시리즈’ 선택

25일부터 와디즈 플랫폼서 펀딩

듀오백이 여름을 겨냥해 통기성과 탄  
성이 뛰어난 메쉬의자 ‘에어로 시리즈’  
(사진)를 선보인다.

16일 듀오백에 따르면 신제품 ‘듀오  
백 에어로 시리즈’는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2주간  
펀딩을 진행한다. 특히 펀딩에 참여하  
는 얼리버드 소비자는 정가가 대비 최  
대 4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시하는 에어로 시리즈는 기존 듀오  
백의 스테디셀러인 골드 제품과 Q1슈  
프림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기  
존 등판의 편안함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에어로 좌판 시스템을 결합해 통기성을



더했다.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한 에어로 메  
쉬 좌판은 바람을 순환시키고 체압 분  
산효과와 통기성이 뛰어나 장시간 착석  
에도 편안하고 상쾌하다.

/김승호 기자

# 이정식 “중대법 완화 등 노동계 우려 인식… 현안 함께 풀 것”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법)

한국노총 방문… 지도부 의견 경청 근로시간 등 尹 정부 정책 도마 위 “노동계 의견, 국정 반영되도록 노력”

취임 전부터 ‘노사 상생’을 강조해왔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친정’ 격인 한국노총을 찾았다. 하지만,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정부 정책 관련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 시작부터 적잖은 부담을 갖게 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 장관을 만나 노동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격변의 한국노동 운동을 온 몸으로 헤쳐오신 장관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새 정부의 국정 과제가 발표된 이후 향후 노동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특히, 노동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 근로 8시간,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해 민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고 싶은 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도 취임식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부분도 묵과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규정에 담긴 안전·보건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국정과제

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저도 한국노총에 있을 때 정부가 늘 노동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자주 뵙고 고용,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윤 대통령도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했는데 의견을 주면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986년 한국노총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노동계와 첫 인연을 맺었다.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대외협력본부장, 정책본부장, 사무처장 등 26년간 노사 관계 개선에 힘쓴 노동 운동가 출신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잠정 연기됐다. 이어 이 장관은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회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尹 ‘강군’ 키운다면서… 예산안은 ‘표리부동’

(表裏不同)

추경 편성서 국방예산 1조 이상 삭감 “전력지원물자 개선 꿈도 꿀 수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병봉급 200만원 지급과 국군장병들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전력지원물자’ 및 ‘주거여건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부는 33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을 1조원 이상을 삭감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앞으로는 강한국방을 외치면서 뒤로에서 국방예산의 삭감을 추진한다’, ‘최저가입찰로 조악한 가짜가 판치는 전력지원물자 분야’, ‘국방부와 관사도 빼줬는데 팽이나’ 등의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병장봉급 내년 100만원에 그쳐…군 간부 처우도

16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에 따르면 현재 67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병봉급과 함께 자산형성을 위해 수령 받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해도 2025년이 되어야 병장기준으로 봉급 200만원이 충족된다. 정부지원금은 현재 14만 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때문에 ‘군인할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군의 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력운영비 9518억원과 방위력개선편비 5550억원 등 총 1조5068억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

감액된 예산 중 9500억원 이상은 장병복지 및 전력운영관련 예산에서 빼은 것으로, 이는 감액 국방예산의 63% 이상이다. 병의 생활관 신축·개보수 등 주거개선 예산은 550억9000만원이 감액됐다. 기존예산 대비 30%가 삭감된 것이다. 군 관사와 간부 숙소 추가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도 23%가 줄어들어 135억원이 감액됐다. 장병들의 편의시설 설치·보수 관련 예산도 218억5000만원 삭감됐다.

◆전력지원물자, 무기체계도 예산 깎아

‘짜퉁’ 판칠 것

익명의 지휘관은 “민감하게 드러나는 병급여와 주거 및 복지예산도 대폭 삭감되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전력지원물자 예산 증액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라며 “장병 개인의 생명과 전투력 향상에 직결되는 방탄헬멧, 방탄복 및 각종 피복, 총기 및 광학장비, 통신장비 등의 개선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의 과제에 포함됐던 전력지원 분야 개선은 발표 당시에도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어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지원체계보다 무기체계 예산에 치중하는 국군이 대폭 줄어든 예산을 전력지원물자 분야에서 뺄 수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일선 장병들은 ‘최저가 입찰제’로 중국제 가짜가 앞으로 더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장병의 의·식·주와 복지관련 예산만 삭감된 것이 아니기에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은 높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F-35A 전투기와 C-130H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성능개량사업, 해상초계기-2 사업 예산도 크게 줄었다. F-35A와 C-130H의 성능개량 예산은 각각 50억원과 100억원이 삭감됐다. P-8A을 도입하는 해상초계기-2 사업도 100억원이 감액됐다. /문형철 기자 captinm@

# 농식품부-대한항공 전용 항공기로 딸기 수출 이끌어

5개월간 딸기 1584t 실어 날라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딸기 전용 항공기가 고품질 딸기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협력해 추진한 딸기 전용 항공

기는 지난 5개월(2021년12월~2022년4월) 동안 총 385편(홍콩 227편, 싱가포르 158편) 운항하며 동기간 홍콩·싱가포르 수출물량의 93%에 달하는 1584톤을 실어 날랐다.

딸기는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생산해 수출하는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해소를 위한 딸

기 전용기는 작년 싱가포르행에 이어 올해 홍콩까지 확대 운영됐다.

수출 농가와 업체는 딸기 전용 항공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기에 수출을 지원해 딸기의 신선도를 높여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고운임이 지속되는 여건에서 시중운임 보다 낮은 고정운임을 제공해 수출업체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자동차 수출 반등… 내수·생산은 감소세

친환경차 호재… 4월 수출액 44억 4000만 달러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이 이어지며 자동차 생산과 내수는 감소가 이어졌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 대수와 수출액은 각각 19만6780대 44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12.4%, 6.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다.

수출 대수는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글로벌 시장 내 국내 브랜드의 친환경차 판매호조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3월(20만6677대)에 이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 금액은 수출물량 증가와 친환경차 수출 비중 확대(19.5 → 24.4%) 등에 힘입어 올해 3월 실적과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지역별로는 중동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주요시장인 유럽연합(EU)지역으로의 수출은 줄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부품 공급차질과 조업일수 감소(-1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30만6462대를 기록했다.

내수는 친환경차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출고 적체 지속과 역기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한 14만3167대 판매에 그쳤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친환경차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부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현지 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한 19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공정위, ‘선비콜’ 택시영업 제한행위 제재

특정 충전소 이용하지 않을시 콜 금지

특정 LPG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콜 배차를 막은 개인택시사업자 단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영가스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택시 콜 배차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해 시행한 선비콜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비콜은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원활한 택시 영업을 위한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이에 대한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위해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다.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선비콜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선비콜이 이런 조항을 신설한 목적은 대영가스충전소 적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개정 내용을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고지했다.

선비콜의 이런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버스 속 소소한 재미

## 버스족(族) BUSJOK

버스 매일 탑승하시나요?  
서울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물합니다.



### [ 버스족 이벤트 참여 방법 ]

1 서울시내버스를 타고  
YapTV 속 콘텐츠를 본다.



2 영상 속 AR코드를 촬영한다.  
\*버스족 앱의 AR촬영 카메라만 참여 가능!



3 이벤트 참여하면  
[ 다양한 브랜드 ] 선물이 속!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버스족을 검색하세요.



# 부산지역 14개 대학, 산업계와 '상생 성장' 생태계 조성

'LINC 3.0 사업' 공모 선정 일반대 9개교, 전문대 5개교 6년간 최대 2820억 확보



부산시는 16일 지역 14개 대학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부산시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3.0) 공모에 부산지역 대학 14개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LINC 3.0 사업은 1단계 LINC, 2단계 LINC+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고도화한 후속 사업으로서 교육부 대학지원사업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산학협력 종합 지원사업이다.

부산에서는 일반대 9개교와 전문대 5개교 등 총 14개교가 선정됐으며, 부산대와 부경대는 기술혁신 선

진해 11월부터 LINC 3.0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LINC 3.0 사업 평가 지표에 맞춰 유치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역 대학의 공모 선정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부산시, 지역 대학 21곳, 부산상공회의소, 부산테크노파크 간 체결한 업무협약(상생 발전을 위한 지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유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협력 특별자금 신설을 포함해 부산시 산학협력 마일리지 지원방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특화시책 추진으로 지역 대학 혁신과 지역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선정된 14개 대학은 올해 국비 470여억 원 등 6년

간 최대 2820여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선정 대학은 앞으로 LINC 3.0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공유·협업 체계 및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등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성장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 유치를 계기로 대학의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이 기업 성장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고, 나아가 지역 산업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목포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

목포시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2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

관광두레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주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공동체 중심의 관광 관련 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했다.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인 '두레'를 '관광'에 결합한 것으로 관광은 비즈니스를 의미하고 두레는 주민사업체를 뜻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6월 13일까지로 서류평가, 온라인 아카데미 및 현장시설, 발표평가 및 종합심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말 최종 선정·발표된다.

선발된 신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는 최장 5년 동안 역량 강화, 컨설팅, 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지원, 홍보·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 전남 일자리 우수기업 인센티브·인증패 수여

최근 7년간 1325명 고용창출 20개사 인증해 2000만원씩

전라남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2022년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해 고용환경개선 자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고용창출 및 고용환경 개선에 힘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안정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10개 기업씩 선발해 지원했으며 2019년부터 20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00개 기업을 선정, 총 1325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는 20개사를 선정해 ▲고용환경개선자금 2000만 원 ▲인증서, 인증패 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사업 선정 시 우대 등 혜택을 준다.

신청대상은 전남에 있으면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다. 다만 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한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해선 최근 1년간 기업 규모별 신규 일자리 증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15명 이상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5% 이상 또는 5명 이상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고용이 늘어야 한다.

전남도는 기업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인증을 준비하도록 현재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6일까지 기업이 소재한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화 '브로커' 메인 예고편 장면. /부산영상위원회

## 부산 로케이션 영화 3편, '칸' 공식 초청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에서 촬영한 영화 세 편(▲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헤어질 결심(감독 박찬욱) ▲헌트(감독 이정재))이 제75회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고 밝혔다.

영상위에 따르면 이번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한국 영화 두 편이 모두 부산에서 촬영을 진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계적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는 지난해 약 두 달 동안 연산동, 전포동 등 부산 13개 로케이션에서 촬영했다. 국내에서 모든 촬영을 진행한 영화로, 여정의 출발지가 바로 부산이다.

박찬욱 감독의 네 번째 칸 경쟁 부문 진출 영화 헤어질 결심은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23개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장소는 부산영화촬영 스튜디오를 비롯해 금정산, 한국해양대학교, 기장 도예촌 등이다. 특히 16개 구·군 중 14곳에서 촬영을 진행해, 부산 전역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이트 스크린'에 초청된 배우 이정재의 연출 데뷔작 헌트는 지난해 부산에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진행한 작품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기장군, '반딧불이 생태체험' 행사 개최

청정 기장 이미지 제고

부산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6월 10~14일 5일간 장안사 일원에서 '제7회 반딧불이 생태체험 학습행사'를 개최한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대표적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의 생활사를 관찰·학습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반딧불이의 서식을 홍보해 오염되지 않은 청정 기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이 행사를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0년 기장군내 반딧불이 서식지 탐사를 통해 밝기가 가장 선명하고 빛이 아름다운 '운문산반딧불이'를

포함해 '늦반딧불이'가 기장의 다수 지역에서 출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반딧불이 체험부스와 포토존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특히 일광욕에 위치한 '극단 가마골 연극팀'과 함께하는 장안사 계곡 탐방로의 구간별 테마 퍼포먼스 공연이 준비돼 있어 반딧불이를 탐사하는 동안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긴장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하루 4회(회당 50명), 오후 8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운영되며, 참가신청은 16일부터 기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 강좌신청을 통해 선착순 예약 가능하다. /부산=장병호 기자

##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설계 공모

26개국 122팀 참가

전라남도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하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에 26개 나라 122팀이 참가등록을 해 국제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제설계공모 마감 결과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터키, 스페인, 인도 등 해외 건축사 73팀과 국내 건축사 49팀이 참가 의사를 보였다.

2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설계공모

는 1단계로 오는 31일까지 접수 작품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건축계획 및 배치, 전시 콘셉트 등을 심사해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어 세부 설계 등을 2단계로 심사해 8월 30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누구나 찾고 싶고, 가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공모에 해외 건축사를 비롯한 국내 유명 건축사가 대거 참가등록을 한 것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외국인 3명을 포함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 대표 브랜드 육성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대표 브랜드를 육성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2022년 부산스타 소상공인 발굴·지원사업' 사업은 지역 대표 소상공인 10개사를 선정해 부산 대표 소상공인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향후 지역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대표 소상공인에 선정된 10개 기업은 ▲스타소상공인 인증 ▲성장컨설팅 ▲성장지원금 ▲마케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 ‘첨가물 제로’ 즉석밥 온다... 첨단 클린룸 통해 집밥 상품화

## 하림 ‘The미식 밥’ 론칭 기자간담회

첨가물 없이 100% 쌀과 물 제조 온수로 천천히 뜸... 공정 차별화 백미밥, 귀리쌀밥 등 11종 라인업

지난해 ‘The미식’ 브랜드를 론칭하고 장인라면을 선보이며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을 선포한 하림이 이번에는 즉석밥 라인업을 확장하며 신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하림은 16일 오전 강남 SJ콘서트홀에서 ‘The미식 밥 론칭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석밥 2.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허준 하림산업 대표는 “많은 소비자가 즉석밥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냄새’를 꼽는다”며 “하림이 만든 ‘The미식 밥’은 오로지 100% 쌀과 물로만 지어 냄새가 나지 않고 본연의 풍미를 살렸다”고 입을 열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SJ콘서트홀에서 열린 ‘The미식 밥’ 11종 신제품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어 “한 알 한 알 살아있는 갓 지은 밥의 풍미를 그대로 재현한 ‘The미식 밥’을 통해 기존 1세대 즉석밥을 꺼렸던 소비자들까지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The미식 밥’은 집에서 밥을 지을 때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는 것처럼 ‘첨가

물 제로’를 구현했다. 물붓기(가수)와 밀봉(실링) 2개의 공정에서 최첨단 무균화 설비인 클린룸(클래스 100, NASA 기준)을 운용해 다른 첨가물 없이 오직 쌀과 물로만 밥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하림의 설명이다.

아울러 냉수 냉각이 아닌 온수로 천천히 뜸을 들이는 차별화된 공정을 통해 용기를 밀폐하는 포장 필름과 밥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냄으로써 밥알이 눌리지 않고 한 알 한 알 고슬고슬하게 살아있어 갓 지은 밥의 냄새와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실제 The미식 밥의 용기 위를 눌러보면 공기층이 손 끝으로 느껴진다.

하림은 백미밥을 필두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식습관과 취향에 맞춰 귀리쌀밥, 현미밥, 흑미밥, 오곡밥 등 총 11종 라인업을 갖췄다. ‘The미식 밥’ 11종은 아기 젖병으로 쓰는 PP재질의 친환경 사각형 용기에 210g 1인분이 기본 포장 단위이며, 밥 종류에 따라 180g, 300g도 있다.

허대표는 “‘The미식 밥’에는 자연의 신선한 재료로 최고의 맛을 만든다는 하림의 식품철학과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면서 “산성이나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해보

면 집에서 지은 밥과 같은 중성(pH 7)이나 온다”고 강조했다. “국산쌀을 사용해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하림은 지난해 ‘순밥(순수한 밥)’을 출시하며 즉석밥 시장에 발을 들인 바 있다. 당시 경쟁사 대비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허 대표는 “이미 단종된 ‘순밥’과는 쌀 품종과 공정과정이 다르다”며 “하림은 지속해서 밥에 대해 연구하고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The미식 밥’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 2300~2800원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지난해 경쟁사가 즉석밥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때문에 가격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The미식 밥’은 전국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하이트진로음료, 1분기 영업이익 116% ‘쾅쾅’

음료부문 매출 전년동기비 53% ↑ 하이트제로 등 ‘무 마케팅’ 전략 주효

하이트진로음료는 올해 1분기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영업이익은 116% 크게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음료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생수 PET는 28% 성장을 기록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올 1분기 실적 호조는 생수 부문의 ‘석수’와 음료 부문의 ‘하이트제로.00’, ‘진로토닉워터’, ‘블랙보리’ 등 주력 제품의 고른 성장으로 이뤄낸 결과다. 특히 당류와 첨가물, 칼로리까지 뺀 ‘무(無) 마케팅’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19로 확산된 건강 트렌드와 맞물려 음료 부문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필환경 차원의 무라벨 생수 페트 전

한도 무마케팅 전략에 한 몫 했다. 실제 1분기 전체 생수 PET 생산량의 52%가 무라벨 제품이다.

국내 최초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인 ‘하이트제로.00’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5% 급증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하이트제로.00’은 지난해 2월 알코올은 물론 칼로리와 당류까지 제로인 ‘올프리’ 콘셉트로 전면 리뉴얼한 이후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78% 고성장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대표 미서 브랜드인 ‘진로토닉워터’도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며 ‘하이트제로.00’과 함께 회사 실적을 견인하는 주축 역할을 했다. ‘진로토닉워터’는 최근 4년간 3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이며 지난해 4000만병 판매로 연간 매출 200억원대의 히트 제품 반열에 올랐다. 하

이트진로음료는 저도수 시대에 부합하는 건전한 음주 문화를 이끌기 위해 소토닉(소주+토닉워터)이라는 한국형 토닉 문화 확산을 주도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제로칼로리’ 음료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를 고려해 국내 최초의 무칼로리 토닉워터인 ‘진로토닉워터 제로’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올 3월 기준 ‘진로토닉워터’ 브랜드 전체 매출의 23%에 달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회사의 또 다른 효자 상품인 세계 최초 검정보리차 ‘블랙보리’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신장했다.

주력인 ‘석수’ 페트(PET)도 코로나 19 이후 생필품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온라인 채널 공급 강화, 무라벨 확대 적용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신원선 기자

## 풀무원, O2O 플랫폼 ‘출출박스’ 입점처 확대

개인 맞춤형 식단 운영 서비스 강화

풀무원은 기업 맞춤형 O2O 푸드 플랫폼 ‘출출박스’의 신규 입점처를 확대하고 맞춤형 식단 운영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풀무원 ‘출출박스’는 풀무원의 다양한 신선식품과 냉장·냉동 도시락, 간편식(HMR)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무인 판매 플랫폼이다. 간단한 간식부터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과 일반 식사 및 개인 맞춤형 식단 ‘디자인밀’ 등의 다양한 제품 유형을 상주 인력 없이 24시간 운영 가능해 다양한 기업과 기관 등 고객사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출출박스’는 최근 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으로의 신규 입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에는 식사 시간이 불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서울대병원 본관 휴게 공간에 설치된 풀무원 ‘출출박스’에서 간편식을 구매하고 있다. /풀무원

칙한 의료진을 위해 서울대병원(본관, CMI, 암병원, 의생명연구원, 어린이병원)에 신규 입점했다.

포스코 포항 본사에는 지난해 12월 첫 입점 이후 현재 총 13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강남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한국타이어, SK 계열사 등에서 운영 중이다.

/신원선 기자

## 11번가 “‘LIVE11’ 유튜브로 보세요”

크리에이터 채널서 동시 송출 시도

11번가의 라이브방송 ‘LIVE11’이 유튜브로 채널을 확장하고 동시 송출을 시도한다. 11번가는 이번 첫 동시 송출을 시작으로 20여 개의 베타 버전 방송을 통한 고도화를 거쳐 하반기 새로운 형태의 LIVE11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11번가는 16일 오후 8시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이하 카러플)’ 2주년 라이브방송을 11번가 앱 내 LIVE11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 ‘대도서관TV’, ‘런민기’ 3곳에서 동시 송출한다.

11번가는 이번 방송을 시작으로 유튜브 동시 송출 형태의 방송을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

## “부부의 날, 정관장으로 건강 나누세요”

KGC인삼공사 ‘사랑이 블루밍’ 이벤트 한정판 구매시 ‘화애락진’ 3포 증정

KGC인삼공사 정관장 직영 온라인몰 ‘정관장몰(정몰)’에서 부부의 날을 맞아 5월 22일까지 ‘부부의 날 사랑이 블루밍’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정관장 화애락진 블루밍’ 에디션을 구매한 고객에게 ‘화애락진 3포’를 추가로 증정한다. ‘정관장 화애락진 블루밍’은 ‘화애락진’을 비롯해 일러스트 패키지에 담은 시즌 한정 제품이다.

‘화애락진’은 갱년기 여성의 도움을 주는 정관장 6년근 홍삼과 부원료로 약·당귀·대나무잎 등 식물성 성분도 함유한 액상형 파우치로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다.

정관장 대표 브랜드 ‘화애락’은 출시 이후 현재까지 240만 세트가 판매되었고, 이는 약 7000만포가 팔린 셈으로 여성 건기식의 인기템이다.

정관장몰에서는 부부의 날처럼 특별한 날을 지정해 ‘포쿠폰’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SMS/메일을 통해 알림과 쿠폰 혜택이 제공되며 1년에 최대 6일까지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 애경산업 ‘원씽’ 지분 70% 인수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스킨케어 화장품 기업 원씽의 지분 70%를 14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씽은 화장품의 핵심 성분에 집중해 좋은 성분의 함유량은 최대한 높이고 불필요한 가격 상승 요소는 배제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가진 스킨케어 기반의 화장품 기업이다. 주력 상품은 병풀, 여성초, 인진숙 추출물 등 화장품의 핵심 성분에 집중해 스킨케어 제품으로 최근 에센스 세럼, 선 크림 등을 출시하며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애경산업은 원씽 인수를 통해 화장품 사업의 포트폴리오 강화와 함께 디지털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 다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갤러리아백 ‘우주로의 탐험’ 전시 행사

갤러리아백화점이 압구정동 명품관에서 16일부터 1주일간 우주를 테마로 명품시계와 보석을 선보이는 ‘익스플로링 더 유니버스(우주로의 탐험)’ 전시 행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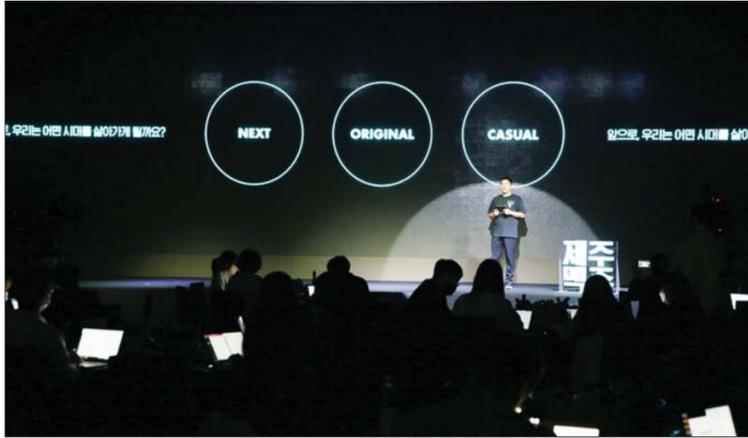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우주’를 테마로 한다. 별, 은하수, 달 등을 모티브해 디자인되거나 의미를 담은 명품시계와 보석들을 명품관 하이주얼리&워치 매장(이스트 지하1층)에 대규모로 전시한다.

전시회에는 브레게, 예거 르쿨트르, 샤넬 주얼리 등 총 13개의 명품 브랜드들이 참여해 90억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주얼리 상품들이 선보인다. 총 14개의 국내 단독 제품들이 전시되며 주요 전시 제품으로 ▲브레게의 ‘레인 드 네이플 데이 앤 나이트 8999’ ▲예거르쿨트르의 ‘랑데부 데즐링 문’ 등이 있다.

/김서현 기자

# “#캐주얼 #오리지널 #넥스트... 韓 대표 맥주로 거듭날 것”

**제주맥주 ‘브루잉 데이 2022’**  
AOMG와 협업 등 콘텐츠 활용  
‘위트에일’ 오리지널리티 강화  
비알코올 등 넥스트 라인 출격



단상 위에서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제주맥주는 16일 제주맥주 브루잉 데이 2022를 통해 국내 맥주시장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회사가 나아갈 방향과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맥주

“한국 맥주 산업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코스닥 상장 1년 만에 엔데믹을 맞은 제주맥주의 국내 맥주 시장에 대한 진단이다. 제주맥주는 맛과 품질보다 가벼운 트렌드와 가격 경쟁력에 부응하며 패스트패션화 되는 국내 맥주 산업의 본질에 대해 묻고 한국 대표 맥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제주맥주는 1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주맥주 브루잉 데이 2022’를 열었다.

브루잉 데이에서는 그동안 한국 맥주 시장의 역사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제주맥주의 향후 포트폴리오 소개가 있었다. 제주맥주는 크래프트 맥주 기업 최초로 지난해 5월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으로 지난 2015년 미국 크래프트 맥주 회사 ‘브루클린 브루어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설립됐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CEO)는 이날 인사와 함께 국내 맥주 시장을 돌아보고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소개했다.

문 CEO는 최근 국내 맥주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으로 ▲2010년 무렵 시작한 해외 맥주의 ‘4캔 1만원’ 프로모션의 일반화 ▲2020년 주세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의 맥주 생산 ▲유통가 전반에 이어진 컬래버레이션 열풍 등을 꼽았다.

문 대표는 4캔 1만원, 크래프트 맥주 열풍, 컬래버레이션 열풍 세 가지가 국내 맥주 시장의 성장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체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4캔 만원이 정착한 후 맥주 회사는 행사에 포함되기 위한 맥주를 적

어내게 됐는데, 이는 제조사 입장에서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주세법 개정 후 크래프트 맥주가 핫 트렌드가 되자 이를 시장 내 모든 플레이어가 큰 노력 없이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유통가를 휩쓴 메가 트렌드인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브랜드와 상품의 컬래버레이션이 맥주로 넘어오며 맥주의 고품질화보다는 가격 경쟁력과 ‘재미’가 맥주 시장을 뒤덮었다고 말했다.

조은영 제주맥주 COO(최고운영책임자)는 제주맥주의 새로운 제품 포트



지난달 출시한 캐주얼 라인의 ‘MBTI 맥주’ /김서현 기자

폴리오 전략으로 ‘캐주얼·오리지널·넥스트’를 설명했다.

캐주얼 라인은 동시대 문화 콘텐츠를 담은 데에 목표를, 오리지널 라인은 기존 에이스 3종을 중심으로 한 제품 라인업 확대, 넥스트 라인은 크래프트 맥주 본연의 실험정신을 심본 발휘할 예정이다.

조 COO는 캐주얼 라인 제품을 설명하며 “단순한 재미와 유행을 위해 맥주를 구입하는 현상은 캐주얼하게 맥주를 즐기는 고객층의 형성을 뜻하고 이는 패스트푸드, 패스트패션과 같다”며 “빠르게 제품을 찍어내는 것 이상 콘텐츠를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힙합레이블 A

OMG와 협업 제품 AOMG 아워에일을 소개했다. AOMG 아워에일은 고유한 QR코드를 통해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아워에일에서만 공개하는 AOMG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추천 플레이리스트를 들을 수 있다.

오리지널 라인, 제주맥주의 대표 상품 ‘제주 위트에일’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해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 로컬 원재료 발굴 및 사용을 늘리고 이를 위한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트 라인은 제주 맥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오코통 숙성 배럴, 스파클링 플라워 에일 프루티제, 소규모 양조 설비 ‘스몰배치’를 활용한 용감한 주방 프로젝트, 비알코올 맥주 등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식품기업 CJ 제일제당과 미래 푸드 컬처 선도를 위한 협업 소식도 알렸다. 제주맥주는 지난 12일 CJ제일제당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알리고 싱글 이코노미 시대의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리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맥주는 2024년부터 글로벌 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D2C기업 에이피알, 1분기 매출 ‘새역사’

매출 763억, 전년비 23% ↑  
메디큐브·널디 등 실적 견인

뷰티와 패션 등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D2C 기업 에이피알이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에이피알은 1분기 763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도 동기간 대비 23% 신장한 수치를 나타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전 분기(2021년 4분기)의 800억원 실적과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4월에만 300억원의 매출을 돌파하는 등 2분기 수직 성장 역시 기대된다.

에이피알 성장의 일등 공신은 뷰티 솔루션 브랜드 ‘메디큐브’다. 지난해 말부터 더마 코스메틱, 바이오·이너뷰티, 뷰티 디바이스 등 패밀러 브랜드로 확장한 메디큐브는 올해 3월 론칭한 뷰티 디바이스 전문 서브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지알’을 성장시켰다. 1종의 기기만 판매했던 1~2월을 지나 3월부터

현재 판매되는 3종의 기기를 모두 내놓은 메디큐브 에이지알은 배우 김희선을 앞세워 4개월 만에 10만대 판매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디바이스와 함께 화장품(더마 코스메틱) 자사몰 매출이 동반 성장하며 3월에만 전년 동기간 대비 156% 성장한 82억원을 기록했다. 메디큐브는 지난달엔 매출 19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월간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

스트리트 브랜드 널디 역시 전년 동기간 대비 34% 성장한 235억원의 분기 매출을 냈다.

널디는 다채롭고 독특한 색감과 디자인, 뮤즈 태연이 주는 합한 이미지가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며 진출한 모든 국가들의 온·오프라인 매출이 고르게 증가했으며, 아시아 스트리트 패션의 대장주로 올라섰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와 무역 이슈 여파에도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

간 대비 61% 신장했다. 널디는 4월 국내에서만 50%가 성장하는 등 엔데믹 트렌드에 맞춰 오프라인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퍼퓸&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포맨트, 자연주의 코스메틱 브랜드 에이프릴스킨, 이너뷰티&건식식 브랜드 글램디바이오 등 에이피알의 다른 브랜드들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이번 1분기 성장에 힘을 보탰다.

에이피알 측은 “1분기 매출은 올해 쿼터점프를 달성하기 위한 전조”라면서 “만약 뷰티와 패션 사업이 4월과 같은 성장세를 보일 경우 2분기 예상 매출액은 1000억 원 고지를 바라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에이피알은 2022년도 4700억원의 매출 목표와 함께 2023년 ‘최초의 비플랫폼 스타트업 출신 유니콘 기업’으로 IPO 시장의 문을 두드릴 예정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hy, 거리두기 해제 후 대면결제 ‘쑥쑥’

프레시매니저 대면결제 횟수 18% ↑

hy 자체 데이터 분석 조직 ‘데이터센터’를 통해 ‘프레시 매니저(야쿠르트 아줌마)’ 활동을 분석한 결과, 리오프닝과 함께 2주간 대면 고객 결제 횟수가 18%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hy 데이터센터 분석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된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2주간 고객 대면 결제 횟수는 60만 건이다. 동기(21년 4월 19일~5월 1일) 대비 18.3% 늘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보다 1명당 9번 더 고객을 만난 셈이다.

해당 채널의 대면 거래액 역시 늘었다. 이 기간 거래액은 83억원으로 프레시 매니저 1명당 76만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대비 18.9% 늘어난 수치로 1회 구매 시 더 많이 구입



hy 프레시 매니저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있다. /hy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기배송을 포함한 총 거래액 대비 대면 거래액 비율은 동기보다 2.7% 늘어난 20.0%로 나타났다.

hy에 따르면 이 기간에 프레시 매니저(야쿠르트 아줌마) 1명당 하루 평균 18.5km를 이동하며 455건의 제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선 기자

## 맥도날드, 정규직 전환 가능 ‘크루’ 채용

22일까지 대규모 ‘열린채용’ 선발

한국맥도날드가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신규 직원을 모집하는 ‘크루 채용 주간’을 진행한다

맥도날드는 현재 단일 글로벌 외식 브랜드 중 최대 고용 규모인 약 1만 5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도 적극적인 채용을 이어가 많은 이

들에게 외식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맥도날드는 전국 직영 및 일부 가맹 매장에서 진행되는 ‘크루 채용 주간’을 통해 학력·나이·성별·장애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 방식으로 대규모의 신규 크루를 선발한다.

맥도날드 크루로 선발된 인원은 QS C(품질·서비스·위생)을 바탕으로 고객

에게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맥도날드는 크루들의 전문적인 업무 능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수한 인재에게는 향후 매장 매니저, 지역 매장 관리자 등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아피셀테라퓨틱스, 위탁개발생산 확대

진스크립트 프로바이오와 계약

대웅제약과 영국 아박타가 합작 설립한 아피셀테라퓨틱스가 글로벌 CDMO 전문기업 진스크립트 프로바이오와 전략적 투자 및 위탁개발생산 확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스크립트 프로바이오는 이번 계약으로 아피셀테라퓨틱스의 다음 단계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8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한 아피셀테라퓨틱스는 다음 편

딩에 앞서 AFX 플랫폼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커버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한 것이다.

AFX 플랫폼은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줄기세포 기반 차세대 유전자세포치료제 기술로, 세포에 약물 유전자를 삽입하기 위해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다. 진스크립트 프로바이오는 유전자세포 치료제의 고품질 원스톱 바이러스 벡터 공정개발 및 GMP 생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원은미 기자

중앙일보의 새로운 슬로건

# 더 중앙에 두다

현장의 진실을, 통합의 가치를,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겠다는 실천의지를 담았습니다.  
그 중심에 '독자를 중앙에 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중앙일보는 기자들이 발품을 팔아 취재한 팩트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진짜 뉴스를 발굴하겠습니다.

##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무분별한 평가르기, 맹목적인 이념 대립 탓에 합리적인 소통이 사라졌습니다.  
이상과 대화로 갈등을 중재하고 통합할 공론장을 복원하겠습니다.

##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성장 없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은 요원합니다. 포퓰리즘에  
맞서 미래 성장동력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편법과 탈법을 견제하는 감시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The  
JoongAng**



네이버웹툰, TBS와 웹툰 스튜디오 JV 설립

네이버웹툰이 일본 지상파 방송사TBS, 일본 웹툰 제작사 샤인 파트너스(SHINE Partners)와 함께 한국 내 웹툰 스튜디오 '스튜디오 톤(Studio Toon)'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왼쪽부터) 샤인 파트너스 이와모토 케이타 대표, TBS 사사키 타카시 사장, 네이버웹툰 김준주 대표가 '스튜디오 톤' JV 설립 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중기중앙회, '중소 발전 염원' 올림픽 전달식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올림픽(좌) 전달식을 가졌다. (왼쪽부터)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소순주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올림픽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에버랜드, 21일 캐리비안 베이 개장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는 21일 캐리비안 베이를 개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캐리비안베이는 우선 아쿠아센터와 메가스톤, 유수풀 일부 구간을 오픈한다. 다음달 4일 야외파도풀, 다이빙풀, 25일에는 아쿠아루프, 티워부메랑고 등 주요 시설을 순차 오픈할 예정이다. /에버랜드

한국지엠 '안전점검 서비스 캠페인' 엔진오일·타이어 등 무상점검

한국지엠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을 맞아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2022년 일상 회복을 위한 안전점검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지엠 차량 보유 고객 가운데 캠페인 기간 내 전국 410개 한국지엠 서비스 네트워크에 차량을 입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지엠은 봄철 장거리 운행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엔진오일, 에어컨 에어필터, 오토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배터리, 타이어(공기압 및 마모도), 브레이크 패드, 와이퍼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 모집 중학생 대상 '미래테크 진로탐구'

기아는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미래테크 진로탐구' 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미래테크 진로탐구'는 6년째 진행되고 있는 기아의 '굿 모빌리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청소년 진로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개설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미래테크 수업은 ▲메타버스 ▲AI ▲드론 ▲3D프린팅 ▲양자컴퓨터 ▲아두이노 등이다. /양성운 기자

코로나 이후 '리모델링 창업'의 성공전략은



이상연의 창업 칼럼

"너무 빨리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요. 개업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이 풀리면서 주문이 거의 없어요."

며칠 전 창업 강의를 듣고 사무실로 찾아온 K씨의 푸념이다. 서울 서초동에서 가정간편식 아이템으로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한지 15개월. 처음에는 비대면적 소비형태에 따라 주문이 많아 수익성도 괜찮고, 고객 반응도 우수해서 신나게 매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엔데믹으로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방역 지침 시행이 오히려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루 매출이 평상시의 30% 수준

으로 격감,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떨어지기 시작한 매출이 최근엔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내려가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보자 특별한 이유가 없어 답답한 심정뿐이다. 점포를 팔려고 해도 거의 맨손으로 나가야 하는 현실이다. 비단 K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처지의 자영업자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존재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적 소비 성향 증가의 영향이다. 창업관련 박람회를 돌아보면 코로나19로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창업 형태가 등장해 왔다. '공동창업' '업종전환' '리모델링 창업' '투자창업'이 그러하다. 발 빠른 배달업종 창업과 업종 전환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욱 작용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K씨와 같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 표적 고객층이 확실한 유망 아이템으로의 업종 변경을 원하고 있다. '리모델링형 창업'을 원하는 것이다.

창업 컨설팅을 20여 년 동안 진행하면서 업종 리모델링을 통해 회생한 점포를 많이 보았는데, 업종 변경에도 성공전략이 있다. 먼저 매장 주변의 1차상권(500m)내 업종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업종의 구성과 점포수, 판매의 형태 및 규모, 상권 내 소비자들의 소비 현황 분석, 구매주기, 구매형태, 객단가, 구매동기, 브랜드충성도, 주고객의 연령 및 성별, 수익성 분석이 조사 요소들이다.

일련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점포를 변경할 업종을 결정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당 업종에 대한 기술력, 인력지원, 유통구조, 협력업체 정보, 가격정책 등 다양한 내·외부적 창업요인을 충분히 검토하

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2의 창업을 준비하는 절차는 신규 창업보다 세심한 점검과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 집기 홍보물 등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창업자금에서 난관에 봉착하는 자영업자들이 다수일 것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정부에서 업종변경 자금과 운영지원 자금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용불량자만 아니라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성공창업은 서비스할 아이템에 대한 표적고객을 파악하고 내부적인 장점요소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고객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그 새로움에 대한 준비와 실행이 결국 매장의 수익성으로 이어진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이경훈, AT&T 바이런 넬슨 우승...韓 첫 PGA투어 2연패

PGA 투어 타이틀 방어 성공 디펜딩 챔피언, 상금 21억원

이경훈(31·CJ대한통운)이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910만 달러)에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이경훈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2·7468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9언더파 63타를 쳤다.

최종합계 26언더파 262타를 기록한 이경훈은 조던 스피스(미국)를 1타차로 제치고 지난해에 이어 이번 대회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면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한국 선수가 PGA 투어 같은 대회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오른 것은 이경훈 선수가 처음이다. 이경훈은



이경훈이 15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맥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린 AT&T 바이런 넬슨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디펜딩 챔피언의 칭호와 함께 163만 8000달러(약 21억원)라는 거액의 우승 상금까지 손에 넣었다.

AT&T 바이런 넬슨 대회에서 이

경훈은 초반부터 무서운 기세로 타수를 줄였다. 2번과 3번홀 연속 버디로 기세를 올리더니 5번과 6번홀에서도 버디를 홀컵에 떨어뜨렸다. 파

5인 9번홀에서도 세 번째 샷을 홀컵 1m 옆에 붙이면서 전반에만 5개의 버디를 슈아냈다. 12번홀 이글은 흐름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 이글로 이경훈은 공동 선두 그룹을 1타차로 밀어내고 단독 선두를 꿰찼다. 13번홀에서도 버디를 보냈다. 17번홀 첫 보기 위기에 몰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절묘한 퍼트로 파세이브에 성공한 이경훈은 주먹을 불끈 쥐며 기쁨을 표현했다. 18번홀에서는 이글 퍼트가 홀 바로 앞에서 멈췄지만 버디를 추가하면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이경훈은 우승 직후 국내 취재진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디펜딩 챔피언이 돼 꿈만 같다. 기분이 좋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카카오스타일, 중소형 판매자 성장 지원

서울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지그재그 판매자 10곳 선정 지원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서울산업진흥원(SBA)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중소판매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실시하는 '2022년 뉴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마케팅 벤처링 지원사업'에 카카오스타일의 지그재그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소재의 신규, 중소 판매자들이 뉴미디어 커머스 플랫폼에서 자립하고 매출 향상

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카카오스타일은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마케팅 벤처링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지그재그 입점 판매자들이 충성 고객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광고 시스템 '파워업 AI 광고' 운영 컨설팅, 기획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그재그에 입점해 있거나 입점

을 희망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 판매자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곳을 선정해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3개월(1~3월)간의 지그재그 내 월 평균 매출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1년 동안 파워업 AI 광고를 집행해 본 경험이 없는 판매자라면 누구나 이달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인사

◆휴온스그룹 ◇휴온스글로벌 △전무 강신원 ◇휴온스 △전무 정광일

부음

▲윤복희씨 별세, 정재일(전) 한국산업리스 회장 처상, 정용우(고려대학교 연

구산학처장 겸 세종산학협력단장 약학대학 교수), 정기호씨, 정금화씨, 정준경(워크데이코리아 전무), 정수연씨 모친상, 박유경 시모상, 손호은(경성대학교 명예교수), 최수영(유틸렉스 대표이사), 김성수(개인사업), 박태원(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빙모상 = 16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장지 원지동추모공

원. TEL. (02) 265075121 ▲최성달씨(부산 개금동 명광교회 원로목사) 별세, 장학순씨 남편상, 경신(재미·사업)·성실·명실씨 부친상, 최은경씨 시부상, 도성수·김민규씨 장인상 = 16일 오전 3시 25분,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영락공원. 051-607-0292

▲김순자씨 별세, 강충모씨(충북도 토지행정팀장) 장모상 = 16일 오전 5시, 경기 광명시 광명성애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8일 오전 7시. 02-2684-4444 ▲최성달씨 별세, 김광훈씨(아주경제 디지털마케팅팀 차장) 조모상 = 16일,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6호, 발인 18일 오전 6시. ☎ 02-2215-4444

# 저성장 물가 불안 딜레마 탈출



신 세 철 역  
쉬운 경제

한국경제는 재정적자 누적확대에 따른 유동성 확대(자산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잠재된 데다 단기 부양대책에 치중하다보니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다. 생산 활동은 멈춰서고 물가불안 현상이 심해져 해결 방향을 쉽사리 찾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한국경제 주변에 도사려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 일거리는 줄어들고 생산비용 금융비용이 커져 한계가, 한계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서둘러 물가를 잡으려다가는 경기침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성급하게 경기를 부추기려다가는 물가불안을 증폭시키는 진퇴유곡에 빠지기 쉽다.

이 같은 국면에서 선부른 대책을 펼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다가는 나라경제는 균형을 잃게 되어 혼란이 거듭된다. 물가를 포기하고 돈을 계속 풀다가는 화폐 가치를 '폴란드 망명정부 지폐'처럼 타락시킨다. 반대로 경기침체를 아랑곳하지

않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는 1970년대 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사태처럼 역성장과 치솟는 실업률로 국민경제는 피폐해진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 갈팡질팡하지 말고 '통화중립'을 펼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들이 약화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예컨대, 원자재 공급교란을 금리를 올려 해결할 수 없다. 경제상황이 정상적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의 연결고리가 되는 금리가 경기나 물가에 중립적이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기를 부추기지도 않고 물가를 자극하지도 않는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어야 경제순환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다. 중립금리(natural rate of interest)는 시장금리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적정 수준이다. 금리가 거시경제현상을 그대로 반영해야 주식시장도 내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외환시장 또한 중장기 균형을 찾아가게 된다.

문제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관리통화제도 아래서, 멀리 생각하지 못하고 괜한 생색을 내려는 정책당국자들이

계 중립금리는 성에 차지 않는다. 각국이 화폐가치 안정을 추구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전후 독일연방은행과 1970년대 말 인플레이션투사(inflation fighter)의 상징이었던 폴 볼커(P. Volker) 시대의 미국, 1980년대 제로인플레이션(zero inflation)을 추구한 캐나다 호주 같은 몇 개국에 불과하였다. 화폐가치 안정보다 일시적 경기 진작에 주력하다가 화폐가치 하락으로 열심히 일하기보다 돈뭉치 돈을 들고 다니며 투기를 일삼는 이들이 특별이익을 챙기게 된다. 경제는 무기력해지며 빈부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책 관계자들이 물가와 환율과 관련하여 금리인상 발언을 경쟁적으로 하는데, 자칫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은 금융부문이 거시경제상황과 균형을 이뤄 시장금리가 중립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신중한 메시지를 내는데 그쳐야 한다. 돈을 관리하는 중앙은행 책임자는 엉뚱한 방향으로 금융시장이 흐르지 않도록 '지옥문을 지키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뇌하고 또 고뇌해야 한다.

/경제칼럼니스트

# 경윳값 고공행진, 정부 모든 수단 동원해야



기 지 수 현  
허 정 윤 (산업부)

"이렇게 힘들어서야 살겠나. 알뜰 주유소는 멀고 그나마 싼 곳에 들렀다." 파주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17톤트럭 화물기사는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경윳값을 이야기하자 한숨을 쉬었다. 옥천과 경기 북부를 오가는 기사는 "전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죠?"라는 기사의 말에 주유할 때마다 기록해 놓은 장부를 보여주겠다고 무전적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가 내민 장부에는 2021년 5월 12일 180L(리터)를 주유할 때 22만 8천원이 들었다고 적혀있었다. 최근 180L를 주유한 날짜 옆에는 34만 1천원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1년 사이에 부쩍 올라버린 경윳값이 실감되는 순간이었다. 그나마도 주

유소 영업자는 "파주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가 안 나거나 경유 가격이 낮아 대형 화물차 기사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옆에서 거들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통해 경유가 L당 1850원 이상 오르면 그 이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절반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현장에서는 기준액인 1850원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이런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현행 L당 1850원에서 더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또한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부가 기준을 얼마나 내릴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 이상 상승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한도는 리터당

183.21원으로 설정돼 있었다. 이때 경유 가격이 1950원이라면 고작 리터당 50원이 지원되는 꼴이라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수준의 보조가 되지 않은 셈이다. 민주노동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는 월 200만 원 이상 소득감소를 겪고 있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도입도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서민의 유류부담을 줄여주려면 한시적으로나마 확대폭을 크게 잡을 필요가 있다.

정부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공급 가격이 높아진 상황은 정부가 바란 상황도 아니고, 이런 가격 상승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실천해야 한다. 11%에 달하는 정부 관리 산하의 알뜰주유소의 마진 조정을 통해서라도 주유소 간 경유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17일 (음 4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숨겨왔던 숨씨를 마음껏 발휘. 48년생 마음이 울적할 땐 슬퍼하라. 60년생 아제의 친구가 오늘은 배신하기도 한다. 72년생 생각이 없는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84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었으나 의외의 곳에서 재물소득이 발생된다.
- 소** 37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49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오늘 의 불운을 이기는 법. 61년생 인생에 후식이 없이 바쁘게 간다. 73년생 신세 졌던 사람의 빛을 갚는 날. 85년생 이사할 때 이웃사촌이 형제보다 낫다.
- 호랑이** 38년생 가려움증이 생기니 마음이 우울. 50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 62년생 천재라도 노력을 해야 한다. 74년생 성공의 기회가 보이나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 86년생 자각지성이 아닌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 토끼** 39년생 계획을 세워 차분히 실천하라. 51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63년생 배려를 안 하니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75년생 먹는 것에 배탈 유의해야 하는 날. 87년생 자급으로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긴다.
- 염** 40년생 다툼이 생기기 쉬운 날이나 자중. 52년생 여의주가 손에 들어오니 좋은 일이 있다. 64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않으니 실망은 금물. 76년생 푸른색이 행운을 가져온다. 88년생 이직하여 하던 일에서 성과를 내서 명예가 높아진다.
- 뱀** 41년생 가족 간 시비가 있을 수 있다. 53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상책. 65년생 연인의 사랑이 찾아오니 기쁜 일이 생긴다. 77년생 가족의 협조로 일이 잘 상사. 89년생 누구든 항상 태양은 우리 곁에 있듯이 행운도 내게 있다.
- 말** 42년생 아랫사람을 서로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54년생 줄이 길어도 포기하지 마라. 66년생 작은 결함으로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주의를. 78년생 마음은 불편해도 재물은 들어온다. 90년생 무슨 일든 시작이 있어야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 양** 43년생 조직에서 시시비비 가리다가 내 실수도 알려진다. 55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꿈을 모을 수 없다. 67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것도 지혜. 79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도 모이는 법. 91년생 급할수록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 원숭이** 44년생 사랑에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56년생 결혼생활은 양보와 용서로 이루어진다. 68년생 백만 송이의 장미가 길에 널려있다. 80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92년생 누구를 만나도 주눅 들지 않도록 실력을 갖추라.
- 닭** 45년생 고인 일은 오후에 해결. 57년생 진로수정을 심각하게 고민. 69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으로 행동. 81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93년생 용기가 없다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
- 개** 46년생 기다리던 부동산 문서는 잘 살펴라. 58년생 가정의 화목이 가장 먼저이다. 70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라. 82년생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 일 아프다. 94년생 직장에서 핸드폰 들여다보지 말고 일 열심히 하도록.
- 돼지** 47년생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린다. 59년생 변동이 있어도 초지일관해야 한다. 71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83년생 이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95년생 말이 많다면 불필요한 실언도 많게 되니 진중히.



# 김상회의四季 여실한 인과응보

인과응보라는 말만큼 무서운 게 없다. "지은 대로 받는다."라는 움직일 수 없는 이치가 인과응보의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짓는다는 것인가. 우선 떠오르는 것은 '행위'를 뜻함이라. 불가에서는 행위란 입과 몸과 뜻으로 짓는 일체를 뜻한다. 신구의 삼업(三業)이 청정해야 함을 강조하는데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의 불선한 업을 잘 다스려야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선처에 나는 종자를 심는다고 한다. 그 의미에는 징악(懲惡)의 과보를 함축한다. 좋은 행위를 했을 때 받는 과보로서 인과응보라는 숙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악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다가 그 결과로서 과보를 받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악한 행위에 대한 과보로서 반드시 징벌적 결과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을 살다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사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선한 사람이 세상사 굴곡이 많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많게 본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있는 것이 맞나하는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도 많다. 붓다의 가르침 계승을 모아 엮은 법구경엔 이런 계승이 나온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만난다." 또한 명심보감의 첫 구절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이에 보답하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화로써 이에 보답한다."(爲善者 天報之以福 爲不善者 天報之以禍)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의 놀이터**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자극하는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7		
		5		8	
		6	2	1	
9	3		1	2	4
2	6	3		7	9
	7	1		9	6
			1	8	3
			7		9
				4	

	7				8
9		7	5		6
			1		
	8		7		5
		2	9	1	8
	6		3		2
				8	
1		3	7		8
	9				1

**정답**

6	8	1	9	7	2	4	9	8
7	8	9	6	9	4	8	2	1
2	9	4	8	8	1	6	9	7
8	9	9	2	6	7	1	4	8
8	1	6	4	9	8	9	7	2
4	7	2	9	1	8	8	6	9
9	6	8	1	2	9	7	8	4
9	4	7	8	8	9	2	1	6
1	2	8	7	4	6	9	8	9

4	1	9	2	7	9	8	6	8
8	6	9	4	9	8	7	2	1
2	7	8	6	8	1	4	9	9
6	2	4	8	8	7	1	9	9
8	9	8	1	9	6	2	7	4
7	9	1	9	4	2	6	8	8
9	4	6	7	1	8	9	8	2
9	8	7	9	2	4	8	1	6
1	8	2	8	6	9	9	4	7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94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04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구청장 선거 이곳이 기대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일 만에 열린다.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대통령선거의 열기도 지방선거를 한차례 휘감은 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완패를 당한 지난 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행정 권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송영길 등 지난 대선의 주역들이 등판하며 두 번 연속 대형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각 당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8~9곳 승리를 목표로 잡은 가운데, 19일부터 대망의 공식선거운동 막이 오른다.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선거일 현황판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

# 국힘, 지난 지선완패 설욕 vs 민주, 대선·지선 연패 ‘차단’

종로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정문헌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19일 공식 선거운동 막 올라

서울시민의 민생과 행정을 책임질 구청장 선거는 ‘구·시·군의 장 선거’ 급에서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는다. 1000만에 가까운 인구나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제7회 지선은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인한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해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도 속에서 치러졌다. 이에 서울은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區)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강남3구’에서도 민주당에 두곳을 뺏긴 것이 뼈아팠다.

대선과 총선보다 관심이 떨어져 투표율이 낮게 형성되는 지선에 특성에 따라 각 당의 후보들이 시장 후보, 지역구 의원을 필두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뽑힌다.

◆ ‘김영종 시대 종언’ 정치 1번지 종로 서울 종로구는 정치 1번지로 뽑힌다. 청와대, 헌법재판소, 외교부 청사 등 국가기관이 밀집해있고 중요국의 대사관, 대형 언론사 등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종로에서 의원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올라 국정 운영을 한 바 있다.

종로는 김영종 전 구청장(민주당)이 2010년부터 3선을 내리 당선된 곳이다. 연임 제한에 걸린 김 전 구청장은 이낙연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되자 당의 무공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출마 후 낙선했다.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 ‘황무지’가 된 종로구에선 정문헌 국민의힘 후보와 유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결한다.

정문헌 후보는 강원 속초·고성·양양 재선 의원 출신으로 급을 낮춰서 출마했다. 정 후보는 의정 경험과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지역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찬종 후보는 1998년 종로 교남동의

종로구, 정문헌 vs 유찬종

靑·헌재·외교부 등 국가기관 밀집 현직 프리미엄 없는 ‘황무지’ 대결

예비후보들 과열 ‘강남3구’

대선서 尹, 이재명에 29%p차 압승 민주, 지선 패거 수성 녹록지 않아

용산구, 박희영 vs 김철식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민심 엇갈려 3선 성장현 구청장 연임제한 걸려

최연소 종로구의원으로 당선돼 지역 정계에 입문했고 서울시의원 등을 지낸 ‘지역통’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난 대선과 함께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52.09%의 지지를 받아 28.41%를 얻은 김영종 후보에 30% 포인트 가량 앞서면서 종로 민심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 국민의힘 ‘강남3구’에 깃발 꽂나

‘전세는 뒤집혔다?’

민주당은 지난 지선에서 강남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가져오는 패거리를 누렸지만 이번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3구에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서 모두 앞섰는데, 그 격차의 평균은 28.74%포인트다. 그래서 서초·강남구청장 당내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들끼리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유일하게 지난 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서초에선 조은희 전 구청장이 지난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상황이다. 전성수 전 인천부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법조인인 김기영 민주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강남구청장 선거에선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이 출마한다. 그는 강남 지역 대형 마트 대표를 지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직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송파에서도 현직 구청장과 서울시교위 공무원 출신 후보가 맞붙는다. 서강

석 국민의힘 후보는 제2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재무국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한 역량을 앞세운다.

반면 18년 만에 구정 교체를 이뤄낸 박성수 후보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역에서 10년 간 누빈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2회 연속 구청장 당선을 노린다.

◆ ‘윤(尹)의 이웃’ 용산주민들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웃이 된 용산 주민들의 선택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도 선거의 보는 재미를 더한다.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 달 만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오면서 지역 민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3선을 지낸 성장현 용산구청장(민주당)이 연임 제한에 걸리면서 ‘현직 프리미엄’ 없이 후보 간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인 것처럼 부촌과 서민 주거지역이 뒤섞인 용산구도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의원 정책특보를 지낸 박희영 후보가 출마하는 반면 민주당에선 용산구의회에서 3선을 한 김철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 ‘최연소 구청장 도전’ VS ‘文 내부고발자’

서울 강서구에선 대한민국 정치들이 끌어갈 정치 신인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에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구청장에 도전한다. 김태우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파견됐으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지난 총선에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강서에서 붙어 낙선했다.

민주당은 김승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마한다. 김 후보는 1987년생 올해로 35세로 최연소 강서구청장에 도전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국회의원 비서관, 서울시 정부부시장실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번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까지 반영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가려진 후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서초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전성수 더불어민주당 김기연

용산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박희영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강서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김태우 더불어민주당 김승현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 42돌 5·18 기념식…‘국민통합’ 방침  
▲ 2년 만에 부활한 5·18 전야제…시민 참여 행사로 /사진 뉴스

▲ 경찰, 한동훈 ‘장녀 논문대필’ 의혹 수사…반부패수사대 배당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자금 제공한 2명 구속 기소



▲ 이상민 “청문회 때 적절치 않은 언행 송구”…국회에 사과  
▲ 공수처,尹고발건 2건 각하…‘불소추 특권’ 때문은 아닌 듯

# “서울시 생계사업자, 정부지원금 등 정책 영향 크게 받아”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위험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대출 행태에 반영됐다.

정부의 정책 금융으로 생계사업자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대출로 옮겨가면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었고, 다중채무는 증가한 뒤 유지됐다. 고액카드대출은 감소했다가 다시 늘었고, 2금융 신용대출이나 카드연체는 줄어드는 패턴이 관찰됐다.

1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주재욱·윤종진 시민경제실 연구원은 최근 공개된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현황과 경제적 위험요인 진단’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보고서는 법적 진입장벽, 사업 규모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생계형 사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소매업, 음식·주점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5개 업종을 ‘생계형 개인사업자’(생계사업자)로 정의했다.

먼저 연구진은 기존에 사용했던 지표(폐업, 파산, 취업자수, 생산자수 등)들은 생계사업자의 경제적 위험을 파악하기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연구원

### 생계 사업자 경제적 위험요인 진단

사업자 대출 코로나 초기 급증 같은 해 10월 다시 소폭 상승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등 정부정책 영향

연구진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상권 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생계사업자의 폐업 수는 감소했다. 감염병 사태 전인 2018~2019년에는 평균 약 4811개가 문을 닫았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5월에는 폐업 수가 2860개로 오히려 준 것이다.

보고서는 폐업하는 사업자보다 폐업하지 않는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생계사업자의 폐업이 감소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자금, 권리금 회수와 대출 유예의 어려움 등이 꼽

힌다”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폐업에 필요한 요건과 기타 제도적 특성으로 폐업 수가 생계사업자의 위험을 직접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이에 연구진은 생계사업자의 경제적 위험 요소를 보다 정확히 측정·분석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빅데이터 CreDB를 활용, 발전된 위험지표를 새롭게 만들었다.

연구진은 ▲개인 신용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대출 금액이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차주의 비중이

‘A유형’ ▲사업자 대출·지급보증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대출금액이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차주의 비중인 ‘B유형’ ▲대출이 있는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다중채무자 차주의 비중인 ‘C유형’ ▲4개월 전 개인카드 대출이 없었지만 현재 개인카드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차주의 비중인 ‘D유형’ ▲개인 2금융 신용대출금액이 2개월 이동 평균보다 큰 차주의 비중인 ‘E유형’ ▲개인 카드 연체등록금액이 있는 차주의 비중인 ‘F유형’ 총 6개 위험지표를 개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 신용대출 증가를 나타내는 A유형 지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점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정책 금융 시점에 따라 진정되는 것이 관측됐다.

사업자 대출 증가를 뜻하는 B유형 지표는 2020년 4월 급증했다가 감소하고, 같은해 10월 다시 소폭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특례보증 시행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다중채무를 의미하는 C유형 지표는 이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20년 4월 증가한 후 다시 줄지 않고 비슷한 수

준을 유지했다. 정책금융에 따른 누적적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구진은 “카드대출 증가를 나타내는 D유형 지표가 1·2차 금융지원 시 급감한 것은 저금리로 정책금융을 지원받아 카드 대출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뜻한다”며 “그러나 금융지원이 끝나고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자금이 소진되면서 다시 위험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금융 신용대출 증가를 의미하는 E유형 지표는 코로나19 이후 2020년 6월까지 꾸준히 줄어든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같은해 11월에 다시 감소했다. 대출 우선순위가 낮은 2금융권 특성상 정책 지원이 있으면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개인카드 연체를 뜻하는 F유형 지표는 코로나19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자상환유예로 나타나는 연체 감소는 그야말로 정부 정책 때문에 연체를 뒤로 미룬 것일 뿐이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상환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최우수’ 3곳 선정

## 수원시·의정부시·여주시 선정 추진실적·직무환경 개선 등 평가

경기도는 ‘2022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 수원시, 의정부시, 여주시를 각각 선정했다.

도는 인구·세수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 추진실적 ▲세무조사 직무환경 개선 노력 등 2개 분야 9개 세부 지표 평가를 진행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 분야에서는 ▲최근 4년간 평균 법인분 부과액 대비 세무조사 추정률 ▲전년 대비 추정액 증가율 ▲조사 대상 법인 수 대비 조사 수행 비율 ▲정기 세무조사 수행 건수 ▲도 지원 세무조사 건수 ▲조사 대상 법인

수 대비 조사인력 비율 등 6개 지표로 평가했다.

세무조사 직무환경 개선 노력 분야(가감점 항목)에서는 ▲인력보강·감소 ▲새로운 조사기법·특수시책 사례 ▲연찬회 및 발표대회 수상 등 3개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인구 및 세수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수원시, 우수상 용인시, 장려상 평택시가 각각 선정됐다.

수원시는 1그룹에서 최근 4년간 평균 법인분 부과액 대비 세무조사 추정률과 전년 대비 추정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인구·세수 규모가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의정부시, 우수상 시흥시, 장려상은 안성

시가 각각 뽑혔다.

의정부시는 2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지원 세무조사가 6건으로 채택 비중이 높았으며, 가설건축물 축조·연장 신고 시 취득세 등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지방세 신고 누락이 빈번한 건설 현장에 있는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여주시가 최우수상, 양평군이 우수상, 가평군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여주시는 과점주조사에 따른 취득세 추정으로 전년 대비 추정액이 16배 이상 증가해 3그룹뿐 아니라 전체 그룹에서 전년 대비 추정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세종대 산업대학원 2022학년도 후기 2차 모집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은 2022학년도 후기 2차 신입생을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과정은 온라인 강의로 정규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이번 2차 신입생은 부동산자산관리

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유통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과(스포츠산업전공/스포츠헬스케어전공/태권도전공) 등 4개 학과로 석사학위 과정의 입학정원 내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

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며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한다.

이번 2022학년도 후기 2차 신입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대 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서울시 공사장 등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서울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의 연속성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취약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공사장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화재와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 한 훈련도 시행한다. 자치구 통합지원본부와 소방서 긴급구조 통제단이 함께 사고를 수습하는 훈련으로, 재난 대응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훈련은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



화재 발생을 가정한 재난상황 훈련 모습./서울시

화센터’에서 내달 8일까지 13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17일 (화)

음력 : 4월 17일

수도권 날씨

14~26°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22 | 해질 / 19:36

연천 12/26

동두천 12/27

가평 10/26

파주 11/25

서울 14/26

양평 11/26

인천 14/22

수원 14/25

용인 14/25

평택 10/27

백령도 11/18

·자료제공 : Kw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4월 일본 기업물가 10.0% ↑ ... “에너지 급등에 41년 만에 역대급”  
▲ 바이든 “인종혐오 범죄 끝내야” ... 참사 현장 방문 /사진 뉴시스

▲ “나토, 스웨덴·핀란드에 가입전에도 임시 안보 보장 제공 가능”  
▲ 중국 상하이, 점진적 재개방 ... 봉쇄 50일만



▲ 中 4월 산업생산 2.9% ↓ ... “제로 코로나에 물류혼란·가동중단”  
▲ 우크라이나 인도 ‘밀 수출’ 중단 ... 라면·빵 등 식품물가 ‘비상’ /사진 뉴시스



[라이프] 첨가물 제로 즉석밥 온다 집밥 상품화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 “더 가까이, 더 오래... 편리한 금융생활 위해 문 엽니다”



KB국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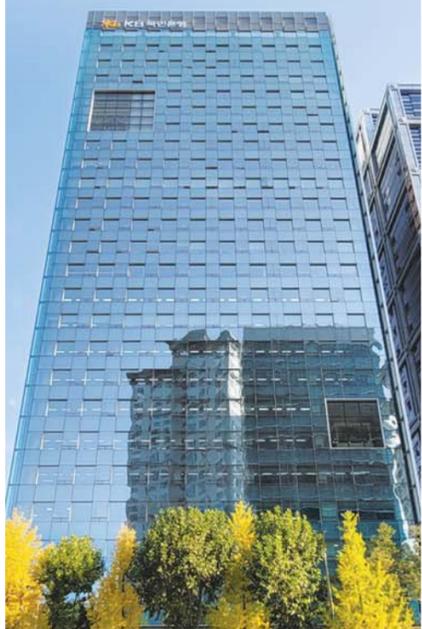


KB국민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장선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이마트와 제휴해 '혁신 점포'를 개설하고 퇴근 후에도 영업점을 이용해 하는 '나인투식스뱅크(9To6 Bank)'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국내은행 점포 311개가 사라졌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대 은행의 국내 영업점 수는 계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감소 폭 역시 2018년 12개, 2019년 38개에서 2020년에 222개, 2021년 224개로 확대됐다.

은행들이 점포를 없애는 이유는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비대면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혁신 점포와 영업시간을 파격적으로 연장한 점포를 운영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소외 현상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다.



◆이마트와 제휴...“급한 은행업무 처리”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이마트 노브랜드와 함께 디지털 제휴 점포 'KB 디지털뱅크 NB강남터미널점'을 오픈했다

제1호 KB디지털뱅크인 NB강남터미널점은 유동인구가 풍부한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역사에 위치해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이마트, 지하철역·고속버스터미널 이용 고객의 급한 은행업무 처리에 유용하다.

또한 지능형 자동화기기 STM, 화상 상담전용창구 등 KB국민은행의 최신 디지털금융 기술을 적용해 고객에게 보다 새롭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STM이란 일반 ATM(현금자동인출기) 기기에서 가능한 입출금, 통장정리 등의 기본 업무는 물론 화상 상담 등을 통해 영업점을 가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계좌개설, 통장 재발행과 같은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기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로 은행 영업점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가능한 서비스에는 먼저 STM을 통한 ▲현금·수표 입출금 ▲체크카드·보안매체(보안카드, 카드형OTP) 발급 등이다.

또한 KB화상상담전용창구에서는 ▲입·출금 통장개설 ▲적금·예금 신규 ▲인터넷 뱅킹 신규·해지 ▲신용대출 등 대면채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화상상담전용창구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또 기본적으로 무인 점포로 운영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스마트 매니저도 상주해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디지털뱅크 개설은 KB국민은행의 대면채널 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 생활금융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혁신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면 채널’ 혁신...“영업시간 연장”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나인투식스뱅크를 확대 시행했다. 퇴근 후에도 창구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나인투식스뱅크를 통해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은행과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대상 영업점은 72곳으로 서울과 수도권, 부산·광주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나인투식스뱅크



KB국민은행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역사 내에 디지털 제휴점포인 'KB디지털뱅크 NB강남터미널점'을 열었다.



KB국민은행은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나인투식스뱅크'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비대면거래 증가로 은행 점포 줄어 금융소외계층 불편 최소화 '앞장'

이마트와 제휴 '혁신점포' 개설 화상상담 가능한 STM 운영도

마감시간 늘린 '나인투식스뱅크' 타은행과 차별화 독보적 서비스

크 직원은 오전·오후조로 나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구에서 고객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운영중인 나인투식스뱅크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내에 '지점찾기' 또는 KB스타뱅킹 내 '영업시간 특화지점 안내·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국민은행 영업시간'을 검색해도 운영 점포 확인 및 방문 예약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나인투식스뱅크 시행 이전에도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영업점 운영모형을 운영해왔다. 2017년에는 영업점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영업시간 특화 점포'로 선정해 코로나19 이전까지 운영해왔다. 영업점 오픈시간을 오전 10~

11시로 늦춘 대신 오후 5~6시에 업무를 마감하는 '에프터뱅크(After Bank)'도 도입해 현재 11개 영업점에서 운영 중이다.

KB국민은행은 나인투식스뱅크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과 8월 '고객경험조사' 및 '고객의견조사'를 의뢰했다. 영업점 혁신의 방향을 고객의 의견으로부터 찾기 위한 시도였다.

고객경험 조사에서는 '영업시간 특화 점포'이용 고객 216명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특화 점포 만족도 및 재방문 의향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만족 응답률은 89%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재방문 의향에 대해서도 94%가 '긍정'으로 답했다.

KB국민은행은 조사 결과를 통해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한 영업점 운영시간 확대가 필요함을 재확인하고 나인투식스뱅크 추진을 결정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은행 업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대출이나 투자상품 상담의 경우에는 창구에서 상담받고자 하는 고객들이 여전히 많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새롭고 만족스러운 금융 경험을 제공하는 KB만의 독보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경훈, AT&T 바이런 넬슨 타이틀 방어 성공...통산 2승째  
▲ 손흥민, 토트넘 올해의 선수 3관왕... “난 행복한 사람” /사진 뉴시스

▲ '1경기 남은' 손흥민 vs '부상 당한' 살라...EPL 득점왕은?  
▲ 관중은 성적순?...SSG 평균관중 1만 3376명 1위



▲ 벤투호 6월 A매치 '3연전' 장소 확정...‘서울·대전·수원’  
▲ 조코비치, 치치파스 꺾고 올 시즌 첫 우승 /사진 뉴시스